주체91(2002)년

6.15주간

6.15Weekly

제30호 (1월11일~1월17일)



민족자주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성명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

오늘의 김혁, 김책이 되자

노작 -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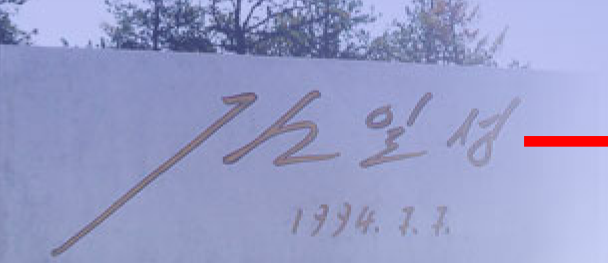
6.15WEEKLY

제30호 (1.11~1.17)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각 도당책임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
1945년 10월 13일



나는 민족통일전선문제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우선 다른 나라들에서의 통일전선의 경험에 대하여 말하려 합니다.

1935년 국제공산당 제7차 대회에서 지미뜨로브 동지는 ≪파시즘의 공세와 파시즘을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의 국제공산당의 과업≫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노동계급의 통일과 단결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 파쇼인민전선을 결성할 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당시 독일에서는 가장 야수적인 히틀러의 파시스트독재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독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파시스트들은 자기 나라 인민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노예화하며 전 세계를 파쇼화하려 하였습니다. 파시스트들의 유혈적 독재와 침략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는 인민전선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인민전선에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자본가들도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인류를 노예화하려는 국제파시즘에 대한 반격의 필요성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는 물론, 일부 자본가들에게도 절실하게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파쇼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정복은 제2차 세계대전발발의 위험신호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국제공산당 제7차 대회에서 인민전선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대회는 각국 공산당들에 반 파쇼인민전선을 결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민전선을 결성할 데 대한 전술적 방침은 프랑스공산당과 스페인공산당에서 제일먼저 채택되었습니다.

동방에서는 아시아인민들을 정복하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음모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조건에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식민지화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들에서는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게 되었으며 프랑스나 스페인과 같이 파쇼화의 위험에 직면한 나라들에서는 인민전선을 결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민전선이나 민족통일전선은 다같이 파시즘과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그 본질은 같지만 매개 나라들이 처한 구체적 형편에 따라서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민족통일전선의 좋은 실례를 우리는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가 만주를 강점하고 중국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게 되자 중국공산당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하고 민족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항일구국투쟁에 나설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공산당의 이 제의는 국민당반동파의 완고한 태도로 인하여 오래 동안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시종일관한 성의 있는 노력은 점차 전 중국인민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마침내 공산당과 국민당의 합작이 이루어져 항일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완고하던 국민당반동파도 민족통일과 항일구국에 대한 중국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에 못 이겨 부득이 공산당의 제의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파시즘을 반대하는 전 세계민주주의 역량의 해방전쟁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파시스트기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된 조선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조선이 나아갈 길을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 오래 동안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로 인하여 조선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심히 억제 당하였으며 조선사회는 봉건적 잔재를 다분히 가진 식민지사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에서는 봉건적 착취관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오늘 조선인민 앞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할 과업이 나서고 있으며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할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혁명을 영도할 것입니까? 노동계급이 영도할 것입니까 자본가계급이 영도할 것입니까? 과거 조선의 자본가계급은 일본제국주의와 결탁하여 조선인민을 착취하고 압박하였으며 ≪민족개량≫이니, ≪민족자치≫니 하는 구호를 내걸고 인민을 기만하였습니다. 물론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나선 민족자본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용감하게 싸운 것은 조선노동계급이였습니다. 1925년에 창건되었던 조선공산당은 파벌싸움으로 인하여 1928년에 해산되었으나 공산주의 운동이 이것으로 종식된 것은 아니였습니다. 1930년대부터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영용하게 투쟁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 앞에 투항하고 그와 야합한 조선의 자본가계급이 혁명을 영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영용하게 싸운 노동계급만이 조선혁명을 영도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영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규정함에 있어서 제2차 대전 후에 조성된 유리한 국제정세와 아울러 북위 38도를 계선으로 하여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의 군대와 사화주의 국가인 소련의 군대가 남북에 진주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우리 당의 역량이 아직 충분히 강하지 못한 조건을 또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노동계급과 농민뿐만 아니라 민족자본가도 포함한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이 참가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지로 인민공화국창건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만 군중을 우리편에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지식층, 종교인, 자본가들도 비록 비조직적이나마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직과 역량이 강화되면 될수록 그들도 분산된 상태에서 점차 조직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현 계단에서 민족주의자들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들을 무원칙하게 배격하여 민족통일전선의 결성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과거 공산당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악선전과 종파분자들이 끼친 해독행위로 말미암아 공산당은 아직도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각성하지 못한 일부 군중은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통일전선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설을 위한 통일전선이므로 일본제국주의 주구들과의 연합이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적 독립국가의 건설을 요구하는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들과는 연합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만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으며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집결할 수 있습니다.

이 투쟁에서 공산당은 소극적이거나 피동적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산당원들은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의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인민대중이 공산당을 따라올 것입니다.

민족자본가들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항상 동요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그들이 자기의 협소한 계급적 이익을 위하여 대중을 기만하거나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족자본가들은 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두려워하며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동요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자본가들이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사업에 열의를 내지 않고 동요한다 하더라도 그들과의 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그들의 죄행과 동요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폭로하고 비판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대중으로 하여금 민족자본가들의 정체를 똑똑히 인식하게 하는 동시에 공산당의 정책을 철저히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은 우리 나라의 통일독립을 주장하는 당파와는 서슴지 않고 합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결코 그들의 뒤꼬리를 따라 다녀서는 안되며 더욱이 다른 당에 흡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산당은 언제나 그들과 합작하면서 자기의 독자성을 고수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제국주의 주구들을 숙청하는데 대하여 한국민주당은 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민주당은 어제까지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였던 지주와 예속자본가들의 집단입니다. 일제가 패망하자 그들은 친미파로 돌변하여 일본의 보호대신 미국의 보호를 요구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의 지주, 자본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주구가 되지 않은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 절대다수가 일제의 손발이 되어 조선인민을 착취하고 압박하였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 친일지주, 예속자본가들과 민족반역자들을 철저히 숙청해야 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제국주의 잔재요소를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에 대하여 민족자본가들도 역시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들도 과거 많든 적든 일본제국주의에 복무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족통일전선을 부르짖고 있는 때에 그들의 죄행을 폭로하며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통일전선 내에서 그들과 단결하는 동시에 투쟁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근로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높일 수 있으며 민족자본가들의 동요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히 하여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주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사람 밑에서 일하였다 하여 덮어놓고 일본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 40년이나 되는 기간에 많은 조선사람들이 일제 기관에 들어가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혁명을 파괴하려고 의식적으로 인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한 자라든가, 일제의 이익을 위하여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자라든가, 일본제국주의에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협력한 분자는 물론 주구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족반역자들에 대하여서는 대중을 발동시켜 대중적인 투쟁을 통하여 반드시 숙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압에 못 이겨 부득이 일제 기관에 복무한 사람들이나 거기서 소극적이며 피동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은 하급사무원들을 주구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양하고 개조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재생할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당면과업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계단을 뛰어 넘을 수 없으며 혁명의 현 계단에서 제기되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당면한 투쟁대상은 제국주의 세력을 다시 부식하려는 제국주의의 주구들과 또한 그와 결탁하는 봉건세력 즉 지주들입니다. 제국주의 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을 반대하고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노동계급이 핵심이 되고 광범한 농민들과 애국적 지식인들, 지어는 민족적 양심을 가진 민족자본가들까지 망라하는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인민정권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현 계단에서 제기되는 전략적 요구인 당의 기본강령은 움직일 수 없으나 전술적 요구인 행동강령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공장은 노동자에게≫라든가 ≪토지는 농민에게≫라는 것과 같은 공산당의 기본강령은 변할 수 없으나 행동강령은 정세의 변화에 따라 거기에 맞게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정세에 가장 적합한 행동강령을 내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전선을 형성하려면 우선 노동자와 농민들의 동맹을 강화하여야 하며 광범한 농민들을 우리편에 쟁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소작료를 감면하는 투쟁부터 시작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투쟁을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전체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투쟁은 작은 것에서 점차 큰 것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광범한 대중을 쟁취하고 적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면 공산당의 대열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선 당내에 기어들어 온 기회주의자들과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일관한 원칙이 없으며 마치 박쥐와도 같이 오늘은 여기 붙고 내일은 저기 붙고 하면서 당의 통일을 파괴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미워하고 경계해야 할 무리들입니다.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공산당원의 탈을 쓴 일제주구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좌적 언행을 일삼고 있으며 지금 당장에라도 자본가계급을 타도하고 ≪소비에트≫정권을 세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공산당을 파괴하고 노동계급을 속여 혁명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당내에 기어든 이와 같은 이색분자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화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의 수양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소박한 공산주의자도 일단 권력을 잡으면 개인의 공명과 이익에 사로잡혀 부화하고 타락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파멸을 가져올 뿐 아니라 당을 군중으로부터 이탈케 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공산당원들에게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공산당원들이 진실로 인민을 위하여 투쟁한다면 인민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줄 것이며 심지어 우리를 똑똑히 알지 못하고 적대시하던 사람들도 우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민권≫이요, ≪민주≫요 하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인민에게 권리를 주는 정치, 인민에게 주권이 있는 정치라는 의미에서는 이것은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조선에는 미국이나 영국식 ≪민주주의≫가 맞지 않습니다.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것을 채용한다면 나라의 독립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다시 외래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에는 조선실정에 맞는 새로운 진보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업은 아직 충분히 각성하지 못한 군중을 빨리 교양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중은 누가 자기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누가 그것을 해치는가를 똑똑히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힘을 다하여 대중 속에서 우리 당의 주장을 꾸준히 해석 선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대중에게 가르쳐줄 뿐 아니라 대중에게서 배우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요구를 해결해 줄줄 알아야 합니다.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공산당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며 광범한 대중을 공산당의 주위에 집결하는 사업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매 공산당원들은 당 대열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며 우 당들과 성심성의로 합작하며 광범한 군중을 쟁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5. 혁명의 씨앗을 넓은 대지에

≪세기와 더불어≫ 제4권 제10장 자주의 신념을 안고



…

간도의 항일근거지들은 1935년에도 물샐틈없는 봉쇄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해에는 적들의 봉쇄가 절정에 이르렀다. 우리가 노선을 바꾸어 혁명에서 대단원을 이루어보려고 결심하였다면 그들은 봉쇄망을 최대한으로 조여 ≪공비≫숙청에서 결정적 승리를 달성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일제는 수천 수만 명에 달하는 정예무력을 동원하여 유격구를 겹겹이 포위하고 매일같이 항일근거지의 모든 생물체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기 위한 ≪토벌≫작전을 감행하였다.

혁명군과 인민들 사이의 연계들을 끊어 버리기 위한 적들의 책동 중에서 기본으로 된 것은 바로 집단부락 정책이였다. 이 정책에 따라 인민혁명정부의 관할 밖에 있는 모든 행정구역의 주민들은 싫건 좋건 토성과 포대로 둘러싸여 있는 밀집부락에 들어가서 오가작통법이나 십가연좌법과 같은 악법들과 중세기적인 질서의 지배 밑에서 두더지 같은 생활을 해야 했다.

적들이 만주 각지에 널려 있는 수천 수만 개의 산재부락들과 가가호호들에 불을 지르고 최후의 통첩적인 철거령을 내리고 그 주민들을 벌방의 토성촌들로 무자비하게 이주시킨 목적은 군대와 경찰, 무장자위단이 상주하고 있는 ≪안민촌≫들에 울방자를 틀고 앉아 편안한 통치를 하자는 데도 있었지만 주요하게는 토성, 포대, 물홈, 울타리, 탐조등, 철조망과 같은 인공적인 장벽들로 ≪공비박멸≫에서 가장 큰 장애로 되고 있던 군민 일치의 핏줄기를 영원히 끊어 버리자는 데 있었다. 유격대가 인민의 보호자이고 인민이 유격대의 후방이며 중요한 정보원천이라는 것은 적들도 잘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

인민을 토성 속에 모조리 걷어 넣으면 도로건설과 군사시설의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역에도 집단적으로 동원시킬 수 있었고 그 비밀도 철저히 보장할 수 있으며 노력과 자금, 물자의 징발도 어느 때나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적들은 집단부락 건설을 계기로 반공선전을 강화했다. 너희들이 정든 고장에서 살지 못하고 집단부락으로 가게 된 것은 공산당 때문이고 혁명군 때문이다, 그들이 너희들과 내통하면서 치안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당국은 부득불 산재부락들을 없애고 백성들이 ≪공비≫나 마적들의 성화를 받

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안성촌≫들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라고 지껄였다.

적들은 토성을 네모나게 쌓고 한 토성 안에 100호 또는 200호의 집들을 밀어 넣었다. 집든 군경들의 감시에 편리하게 현대 공장지구 사택들처럼 줄을 맞춰 지었다. 한 동네에서 온 사람들도 집단부락에만 들어가면서 서로 추녀를 맞대고 살지 못하게 갈라놓았으며 친척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앞 뒷집이나 아래 윗집에 있게 하지 않고 동서남북에 각각 분산시켜 배치하였다. 그것은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치안유지에 방해되는 모의를 하거나 비밀결사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자는 조치였다.

적들이 집단부락 안의 주민들의 분열과 이간을 얼마나 꾀하였는가 하는 것은 오가작통법 한 가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적들은 다섯 집으로 한개 조를 묶고 그중 한 집이라도 유격대와 내통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 안의 모든 세대들에 꼭같은 처벌을 주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그 다섯집의 주민들을 전부 학살하곤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오가작통법이다.

집단부락을 통치하는 행정관리들과 무장군경들은 인민혁명군의 수중으로 한 됫박의 쌀이라도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식량에 대한 통제를 무섭게 하였다. 그들은 주민들이 토성 밖으로 일하러 나갈 때마다 ≪공비≫들에게 줄 여분의 밥이 담겨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려고 점심 보따리까지 헤쳐보았다. 점심 그릇도 한 사람 몫이 넘으면 무턱대고 빼앗아냈다. 집단부락의 농민들은 밭일이 묵어서 새벽작업을 하고 싶어도 날이 밝기 전에는 성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날이 저물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혁명군은 집단부락 인민들의 식량상 방조를 거의나 기대할 수 없었다.

유격구에서 재배하는 곡식으로는 군민에게 필요한 식량을 충당할 수 없었다. 게다가 적들이 줄곧 농사를 방해했다. 그들은 사람과 함께 농작물도 초토화 대상으로 삼았다. 싹이 돋아나는 곡식은 군화로 짓밟았고 성장기의 작물은 불을 질러 태워 버렸으며 다 익은 낟알은 무장대가 우마차를 끌고 와서 모조리 실어갔다. 이것은 총과 대포로써도 멸살시킬 수 없는 유격구역의 군대와 인민을 완전히 굶겨서 죽이기 위한 비열하기 짝이 없는 기아작전이었으며 목을 조이는 봉쇄작전이었다.

≪민생단≫은 해체되었지만 혁명대오를 안팎으로부터 분열 와해하기 위한 적의 파괴작전은 종전보다 더 악랄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투항을 권고하는 삐라들에는 미인들의 나체사진이나 추잡한 남녀관계를 그린 눅거리 춘화들까지 나타났다. 돈에 매수된 미녀들이 로자 룩셈부르크나 쟌느 다르크의 탈을 쓰고 우리 대오에 침투하여 군정간부들의 넋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경찰서나 헌병대로 데려가지 위한 부식공작을 열심히 벌였다.

이 모든 것은 간도의 유격구들을 인간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절해고도의 세계로 만들어 버리고 그것을 철저히 초토화하고 질식시키기 위한 대살인광대극이었다.

이런 대세를 보지 않고 이미 노출된 유격구를 보위하는 데만 몰두하게 된다면 혁명군은 결국 군사적으로 피동에 빠지게 될 것이며 적과의 끊임없는 소모전에 말려들어가 다년간에 걸쳐 육성된 혁명역량은 보존되지 못하고 지리멸렬될 것이었다. 협소한 유격구를 사수하기 위해서만 골몰한다는 것은 결국 적색 구역의 모든 군민을 입체전으로 압살하려고 발악하는 적의 기대에 발을 맞추어 주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었다.

회의참가자의 과반수가 유격구 사수론을 모험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 내가 지금까지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요영구회의에서 유격구 사수론을 고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교조가 심하고 좌경기가 많은 독선적인 인간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경원시하였으며 창안을 잘하는 사람, 발기를 잘하는 사람, 꿈이 많고 환상이 풍부한 사람들에 대해 서로 시답지 않게 대했다.

그러나 우리는 요영구회의에서 이 과격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나이들을 끝끝내 설복해 내고야 말았다. 국제당에 제소하기로 합의한 반≪민생단≫투쟁 문제와 달리 유격구를 해산하는 문제는 회의에서 결정으로 채택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좌경모험주의와의 투쟁에서 거둔 또 하나의 성과였다.

요영구회의는 인민혁명군이 유격구역을 사수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로부터 전략적 공격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적 계기로 되었다. 이 회의의 결정으로 하여 우리는 유격구역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나 동북과 조선의 광활한 판도에서 적극적인 대부대 유격전을 영활하게 벌일 수 있는 창창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간도 5개 현에 국한되었던 인민혁명군의 활동무대는 수십 배로 확대되었다. 우리의 활동무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제한된 지역의 봉쇄에만 매달리던 적들이 곤경에 빠져 허우적거리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5개 현을 포위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밖의 동북의 여러 성들은 문제가 달랐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유격구를 봉쇄해놓고 고정된 지역에서 틀고 앉아 휘파람을 불며 호강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인민혁명군을 쫓아다니며 전례도 없고 규범에도 없는 싸움을 해야 했다.

적들은 우리의 유격구 해산 조치를 ≪관군의 분산배치에 의한 철저한 토벌의 결과≫ ≪간도곤비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도 그것이 광범한 유격운동에로 이전하기 위한 새 전술에 기초한 자발적 행동이고 진공적 조치로 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새로운 전략적 조치는 적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었다.

우리가 유격구를 해산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한 적들은 그 해산을 백방으로 방해하여 나섰다. 군대와 인민이 유격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는 한편 적색구역의 철폐는 무장투쟁의 종말을 의미한다거나 공산주의자들이 유격구역을 해산하는 것은 곧 유격운동을 포기하는 것으로 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면서 민심의 동요를 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각방으로 벌였다. 적들의 이런 책동은 유격구 해산에서 첫째가는 난관으로 되었다.

곤란은 비단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인민이 유격구 해산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었다. 이광림과 같은 군정간부조차도 선뜻 찬성하지 않았던 새로운 노선을 그들이 아무런 심리적 고충도 없이 무심하게 받아들일리는 만무했다. 어제까지는 ≪천당≫이라고 선전하던 근거지인데 오늘은 왜 갑자기 없애치우지 못해 안달하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감투끈인가고 하면서 유격구를 해산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태희 노인은 십리평 인민들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유격구를 해산하지 말아 달라는 진성서까지 보냈다.

각이한 해석과 판단들이 유격구에 떠돌았다. 밤을 자고 나면 누가 끌어들였는지 알 수 없는 불길한 소식들이 한두가지씩 나돌아 사람들을 얼떨떨하게 했다. 혁명군이 적색구역을 철폐한다는 것은 민중보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말도 나돌았고 조선의 낭림산을 타고 앉아 국내에서 유격전을 벌이려고 간도를 포기한다는 말도 나돌았다. 어떤 사람들은 혁명군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쏘련이나 중국 관내 같은 데 깊숙이 들어가서 휴식을 좀 하다가 대열을 와짝 늘려 가지고 간도로 다시 올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런 억측에다가 적의 선무공작대가 퍼뜨리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아 유격구의 여론은 그야말로 수습할 수 없는 혼란상을 이루었

다.

우리는 요영구에서 군민연합대회를 열고 유격구 해산의 절박성과 정당성을 인내성 있게 해설해 주었다. 동만의 각 현과 혁명조직구들에 내려간 특파원들도 같은 성격의 대회를 열고 군대와 인민을 교양하였다. 해산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치를 민중은 어렵지 않게 이해했으며 그것을 정당한 전략적 조치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해산을 집행하는 실무적 단계에 들어가서는 대다수의 인민들이 적구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나가누웠다. 여기서 풀을 뜯어먹어도 좋고 짐승가죽을 우려먹어도 좋다, 적구로 갈 바엔 차라리 유격구에서 굶어 죽는 것이 낫다, 어떻게 적구에 내려가서 왜놈들의 단련을 받으며 살겠는가, 죽어도 유격구를 베고 죽을 테니 우리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소하였다.

우리는 ≪설복하고 설복하고 또 설복하자!≫는 구호를 내들고 매일같이 주민들의 집을 찾아다녔다. 구별로도 모임을 열고 조직별로도 회의를 열어 해설에 해설을 거듭했지만 적지 않는 주민들은 적구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그냥 검질기게 고집하였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과 선동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낳는가를 잘알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어떤 동무들은 그 힘을 무한대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경우에나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많은 주민들이 적구로 내려가지 않고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간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은 적구살이를 모면하려고 참군을 요청했다. 입대 적령기에 들어서지 않은 아동단원들과 소설대원들도 혁명군을 따라가겠다고 성화를 먹였다. 황순희는 그때 자기를 데려가지 않으면 총으로 쏘아 달라고까지 하면서 유격대원들에게 매달려 강짜를 부렸다. 그래서 연길유격대에서는 그의 참군을 허락하였다. 그가 그 체소하고 연약한 몸으로 무장투쟁의 어려운 세례를 이겨내고 수백 수천 갈래도 더 되는 사선을 넘어 오늘까지도 혁명투사로서 한평생을 빛나게 살아올 수 있은 것은 그 강짜의 덕인지도 모른다. 태병렬, 최순산도 유격구 해산과 함께 혁명군에 입대한 투사들이다.

우리는 그 당시 많은 청소년들을 유격대에 받아들였다. 유격구에서 여러 해 동안 인민들과 함께 온갖 풍파를 다 겪어온 당일군들과 공청일군들, 인민혁명정부 일군들도 무장을 메고 우리의 대오에 들어섰다. 재봉대와 병기창, 병원에 들어와서 혁명군을 따라다니겠다고 탄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유격구 해산 과정을 통하여 인민혁명군의 대오는 이처럼 급속히 확대되었다.

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성원 속에서 광활한 대지에서의 유격활동에 필요한 준비와 후방물자의 확보, 무장장비의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부녀회원들은 그때 농짝에 있는 밀천을 다 들어내어 유격구를 떠나가는 혁명군 대원들에게 군복을 지어 주고 배낭이며 손수건이며 행전이며 담배쌈지며를 정성껏 만들어 주었다.

우리도 소개지로 떠나가는 인민들을 위해 최대의 봉사를 다하였다. 이 봉사에서 기본으로 된 것은 소개주민들의 요구와 실정에 맞게 이동준비사업을 다그치는 것이다. 그 당시의 이동준비 사업이 얼마나 치밀하고 실속있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은 간도의 각 유격구들에서 주민소개를 앞두고 작성했던 호구조사표하나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 조사표에는 유격구를 떠나 다른 고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의 성명, 연령, 직업, 친척, 친우의 주소, 성명, 담당공작, 지식, 기술유무, 행선지, 보유식량 등의 사항들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유격구의 지도일군들은 이 호구조사표에 기초하여 어떤 사람들은 적구와 국내에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산속에 보내 농사를 짓게 하였다. 또한 친척들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과 찾아갈 수 없는 사람, 무의탁 어린이들과 환자들을 구분하여 대열을 편성하였으며 그 매개 대열에 무장소조들을 붙여 목적지까지 책임적으로 호송해가게 하였다.

유격구를 떠나 적구나 국내나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 가정들에는 세대당 평균 30~50원 정도의 생활보조금이 분배되었으며 천, 신발, 그릇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필수품들과 화식가구들이 공급되었다. 인민들에게 나누어 줄 돈 과 물자를 확보하려고 우리는 전투도 여러 번 조직하였다. 그런 전투들 가운데서 내 기억에 지금까지도 인상 깊이 남아 있는 것은 오백룡이 자기 삼촌을 혼쌀낸 파격적인 사건과 극적으로 얽혀져 있는 대왕청 집단부락 습격전투이다.

오백룡이 자기 삼촌의 뺨을 친 것은 우리의 수난 많은 민족사가 엮어 놓은 일종의 희비극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때 집단부락을 치고 많은 물자들을 노획하였다. 40여 자루의 38식보총, 40여 마리의 우마, 수십 포대의 쌀과 밀가루, 수만 원의 돈… 실로 군인들의 힘만으로는 운반해가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전리품이었다. 지휘관들은 전투현장으로부터 500~6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부락에 가서 인민들을 데려왔다. 급행급습, 급행이탈이 유격전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요한 전술적 원칙인 것만큼 전리품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부대의 철수가 늦어지고 적이 반격해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다.

이처럼 분초를 다투는 때에 콧수염을 기른 어떤 농민이 짐을 지려 하지 않고 게정을 부렸다. 그는 지어 ≪이 사람들아, 빨치산의 짐을 지고 갔다가 무슨 변을 당하려구 그러는가?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경거망동하지 말라구!≫하면서 남들이 짐을 지는 것까지 막아 나섰다.

오백룡은 보다못해 ≪손님, 짐을 지기 싫으면 돌아가도 좋수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수염쟁이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짐을 지면 큰 화를 당한다고 계속 떠들어댔다.

오백룡은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만 수염쟁이의 뺨을 불이 번쩍나게 답새겼다. 그리고는 먼 친척에게 ≪저 놈이 반동이 아닌가요?≫하고 물었다.

≪이 사람아, 그건 자네의 친삼촌 오춘삼이야.≫

오백룡은 그 대답을 듣고 펄쩍 놀랐다. 자기 삼촌이 조선사람 구실을 못하고 반편같이 행동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자기가 20살이 넘도록 삼촌 얼굴조차 모르고 지내왔다는 사실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웠다. 오백룡이 아직 철도 들기 전에 오춘삼은 가문을 떠나 타지방에 가서 떠살이를 하였다. 그러다나니 삼촌도 오백룡을 몰랐고 오백룡도 삼촌을 알 수 없었다. 오백룡이 혁명가로 성장하는 사이에 오춘삼은 혁명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되었다. 삼촌은 자기 자신이 혁명에 나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식들이 혁명에 나서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는 소심하고 비겁한 사나이었다.

오백룡은 삼촌의 따귀를 친데 대하여 몹시 후회하였으나 그것을 사과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 먼 친척을 통하여 짤막한 편지를 보냈다.

삼촌, 내가 삼촌도 몰라보고 무례한 짓을 했는데 모르고 한 것이니 다 잊어 주십시오.

젊은 녀석들에게 괄시를 당하지 않으시려거든 삼촌도 앞으로 혁명에 나서 주십시오.

오춘삼은 그 후 조카의 권고대로 온 가정을 혁명화하였다. 자기 자신도 혁명가가 되었거니와 처자들까지도 항일운동에 나서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의 아들 오규남은 투쟁의 길에서 청춘을 바쳤다.

≪조카의 주먹이 결국은 내 인생을 바로 잡아주었소.≫

오춘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지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물론 오백룡은 군민관계에 쐐기를 친 것으로 하여 엄격한 비판을 받았다. 삼촌이라면 부모 다음으로 촌수가 밭은 친척이지만 인민혁명군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오춘삼도 민중의 한개 성원이였다.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할 희비극이 한 장면 펼쳐지기는 하였지만 그가 인민들을 동원시켜 실어온 전리품들은 유격구를 떠나가는 주민들의 장래생활에 적지 않은 보탬을 줄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이였다.

유격구해산조치의 정당성은 1930년대의 후반기 앙양일로에 있던 항일혁명에 금상첨화의 봉우리를 얹어주면서 조국해방의 대단원을 향해 줄기차게 달리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의 전반적 발전과정이 생활적으로 실증해주었다.

유격구역의 주동적 해산가 더불어 인민혁명군 부대들이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함으로써 우리의 항쟁역량을 간도의 협소한 산악지대들에 몰아넣고 질식시키려던 적들의 기도는 완전히 좌절되었다. 인민혁명군의 대소부대들은 남북만주와 북부조선의 무변광대한 천지에서 적의 양적, 기술적 우세를 과감히 타승해 나갔다. 인민혁명군이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한 것은 골짜기에서 광야로 나갈 것과 같은 거사였다.

무장투쟁의 강력한 배경밑에서 유격구를 떠난 인민들은 광야에 뿌리를 박고 조직들을 확대하며 광활한 대지에 혁명의 씨앗을 뿌려나가기 시작했다. 귀순문서장에 인장을 박은 몇몇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대륙을 불태우는 한점 한점의 불씨가 되고 성냥가치가 되였다. 정치공작원들도 적구를 휘저어 놓았다.

1935년 5월에 시작된 유격구해산사업은 그해 11월초에 결속된 처창즈 유격구역의 해산을 마감으로 하여 완료되었다.

처창즈에서 유격구해산사업이 다른 고장보다 반년 정도 뒤늦게 진행된 것은 우선 이 근거지주변에 이중삼중의 포위망을 형성하고 모든 주민들이 굶어죽기를 고대하고 있던 적들의 집요한 봉쇄작전의 결과였고 이 구역의 생활을 책임진 일군들의 무책임성과 무능성이 낳은 귀결이였다.

명월구회의에서 유격구후보지를 선정할 때 처창즈를 적지라고 제일 강하게 주장한 사람들은 화룡현 출신들이였다. 안도현 대표 김정룡도 처창즈가 명장자리라고 하였다. 토지가 비옥하고 산림이 울창하고 산세가 험한 이 고장이야말로 적아가 다같이 눈독을 들이는 이상적인 천연요새였다. 간도의 다른 고장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쓸쓸한 산골이였으나 유격전쟁을 하는 과정에 군사물계를 좀 아는 신식풍수쟁이들의 덕으로 처창즈의 금새가 부쩍 올라갔다.

지명의 유래를 들어보아도 군사와 관련된 신비한 것은 아니었다. 그 고장 토배기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처창즈란 달구지를 거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화룡 사람들은 처창즈가 유격대의 군사요충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느라고 홍범도부대가 일본군을 고동하기슭으로 유인하여다가 청산리에서 소멸한 것도 이 지대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매력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처창즈 유격구역 건설을 무력으로 뒤받침해주기 위하여 1954년 봄에 독립연대를 안도지방에 파견하였다. 김일환, 김일을 비롯한 정치공작원들도 처창즈로 들어갔다.

독립연대는 처창즈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위만군 1개 중대를 손쉽게 쫓아버리고 이 고장의 새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이 무력을 배경으로 어랑촌유격구의 주민들이 처창즈에 쓸어 들어와 고동하 건너편에 화룡현 인민혁명정부 건물을 세웠고 뒤미처 왕우구와 삼도만의 주민들이 신선동을 거쳐 이곳에 연줄연줄 나타나 동남차골짜기입구에 연길현인민혁명정부 깃발을 게양하였다. 그리하여 처창주에는 두개의 현에서 온 인민혁명정부가 동시에 존재하는 기이한 현상이 1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처창즈유격구역은 마치 두개의 발동기를 가진 자동차나 두필의 청총말을 태운 쌍두마차와도 같이 기세충천하여 돌진하였다. 초기에는 식량 형편도 그다지 궁색하지 않았다.

요영구회의의 결정에 따라 처창즈유격구역 해산사업에 대한 지도는 안도에서 파견된 당지도부가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성원들은 군대와 인민에게 유격구해산방침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지어 처창즈에 있던 특파원을 ≪민생단≫으로 몰아 처형하려고까지 하였다. 후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처창즈는 간도의 혁명군중, 특히는 연길, 화룡, 안도 지방의 혁명군중이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있던 최후의 지탱점이었다. 최후의 지탱점이라는데로부터 이 지구의 해산을 책임진 일군들이 우유부단한 입장을 취했을 수도 있다.

숨막히는 봉쇄속에서 처창즈인민들이 군대와 함께 1935년 11월까지 유격구를 지켜낸 것은 참으로 경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은데다가 기아로 하여 수많은 혁명군중이 곤경을 치렀다.

우리가 백두산지구에서 대부대연합작전을 벌이기 시작했을 때 김평, 류경수, 오백룡, 박영순이들은 처창즈에서 겪은 그 기아에 대하여 자주 회상하였다. 김명화, 김정숙, 황순희, 김철호, 전희와 같은 여성동무들은 해방후에도 음식상앞에 마주 앉으면 처창즈 시절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김명화와 김정숙은 그 당시 군부에서 작식대공작을 하였다.

이 유격구의 정상은 군부의 식탁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왕덕태를 비롯한 군부의 여러 지휘성원들을 위하여 작식대원들은 날마다 아침부터 산에 올라가 솔껍질을 벗겼다. 콩단만큼한 송기 두단을 해와야 군부의 하루식량이 되었다. 매문 재물에 송기를 넣고 3시간 이상 끓인 다음 흐물흐물해진 것을 건져내어 강물에 행군 후 돌위에다 놓고 망치로 두드렸다. 그리고는 또 물에 씻어냈다. 저녁이 다 될 때까지 이런 공정을 여러번 되풀이하다가 쌀겨를 섞어 죽을 쑤든가 떡을 만들었다. 이것이 처창즈의 일등음식이었다.

송기떡을 먹으면 홍문이 메였다. 아이들이 그때 뒤를 보느라고 여간만 고생하지 않았다. 그럴때마다 어머니들이 울면서 고챙이로 뒤를 봐주었다. 어른들도 홍문이 메여서 고통을 자주 겪었다. 그러면서도 다음날이면 또 송기음식을 먹었다.

소금도 없어서 싱거운 음식을 그대로 먹었다. 죽이나 떡 같은 것은 싱거운대로 참고 먹을 수 있었지만 산채나 나물국 같은 것은 소금이 없으면 먹기가 곤란하였다. 간혹 통신원들이 이따금씩 처창즈에 들러서는 괴춤에 차고 다니는 자그마한 주머니에서 소금알을 몇알씩 꺼내주고 가곤하였다. 소금알 한알을 여럿이 순번으로 한번씩 혀 끝에 살짝 대보고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곤 하였는데 그야말로 목안에 털이 날 지경이었다.

송기마저 떨어지면 방앗간에 가서 겨를 가져다가 죽을 쑤어 먹었다. 그래도 그 겨죽이 묵은 풀로 쑨 죽보다는 먹기가 한결 나았다고 한다. 묵은 풀로 쑨 죽은 껄껄하고 굳어서 먹을 때마다 따끔따끔 목을 찔렀다. 그런 죽마저도 없어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봄을 기다렸다. 춘삼월만 되면 자비롭고 풍만한 대지가 불쌍한 생명들을 기아에서 구출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봄도 아사를 없애지는 못하였다. 봄이 사람들을 위해 선사한 것은 눈밑에서 돋아난 연약하고 보잘것없은 새싹들이였다. 그 싹만으로는 유격구주민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없었다.

사람들은 동면에서 채 깨어나지 않은 뱀들을 잡아먹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는 쥐를 잡아 먹었다. 처창즈에서는 설치류가 멸종되었다. 개구리와 개구리알도 주민들의 끼니감으로 되었다. 개구리알을 삶으면 기장밥처럼 풀기가 있고 차분차분해서 맛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김철호가 회상할 때 나는 오히려 그 찐득찐득한 음식물이 목에 와닿는 것만 같아 섬찍한 감촉마저 받았다. 대원들과 함께 별의별 잡식을 다해온 나도 삶은 개구리알의 맛에 대해서만은 좀처럼 그럴듯한 표상을 가질 수가 없었다.

씨붙임을 할 때 신고 일하던 도로기도 작식가마에 들어갔다. 도로기를 우린 쫍쯔레한 물을 한공기씩 마시고 병사들이 포복전진을 하듯이 배밀이를 해가며 유격구주민들은 봄파종을 하였다. 오늘 씨를 뿌리고는 하루나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그 씨를 파먹었다. 인민혁명정부와 대중단체들에서는 씨붙임이 끝난 밭들에 보초를 세우고 종자를 파먹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그 보초들마저도 주림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씨앗을 파먹었다.

밤이면 아이들이 군부 부엌에 몰래 기여들곤 하였다. 군장이하 모모한 간부들이 식사를 하는 곳이니 먹다가 남은 것이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엉터리없는 공상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굶을 때 왕덕태도 굶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군부의 부엌에 가마치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마저 가지지 못했다면 아이들은 절망에 빠져 죽음앞에 굴복당하였을 것이다.

작식대원들이 가마치를 주면 아이들은 흐느껴 울면서 그것을 단숨에 먹어버리군 하였다. 그리고는 수치감에 사로잡혀 다시는 오지 않겠어요, 다시는 오지 않겠어요 하고 맹세하곤 하였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작식대원들은 부엌문밖에서 먹을 것을 그리며 어슬렁거리는 조무래기들을 발견하곤 하였다.

이런 기아속에서 처창즈사람들은 밭고랑을 기여다니면서 김을 매였다. 손으로 땅을 우비다가 쓰러지고 쓰러졌다가는 또 일어나 손톱끝이 모지라지도록 땅을 우비였다. 두벌김까지 매고나니 보리이삭이 패였다. 속살은 없고 맹물만 차있는 알들을 정신없이 훑어 먹었다. 일어서서 걸어다닐 기력조차 없어 밭고랑에 엎드린채 간신히 보리대를 후려당겨서는 한알두알 입에 따넣고 질겅질겅 씹었다.

처창즈 사람들이 이런 아사지경에서도 순수한 인간으로 그냥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해동안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탱해온 공산주의적 이념,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킬 줄 아는 공산주의적 도덕이 간도의 모든 혁명군중을 성인군자로 만들어 준 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의 팔다리를 삶아먹는 것과 같은 비인륜적인 현상이 처창즈에서는 감히 일어날 수 없었다.

보릿고개가 되자 아이들이 먼저 기아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남자들속에서 아사자가 속출하였다. 자기자신들은 굶으면서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의무를 걸머쥐고 태어난 여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차려졌으니 하나하나의 시신앞에서 온 육신이 깡그리 타서 재가 될 지경으로 슬프게 울고 싶어도 기력이 없어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최악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처창즈가 당한 기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구역을 봉쇄하고 야수적인 토벌을 거듭한 일본침략군에 있었다.

유격구를 책임진 일군들도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결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휘부에 기여든 반동들과 불순분자들은 덮어놓고 ≪배고파도 견뎌내야 한다.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죽는 것은 투항이다.≫라는 초혁명적인 언사로 대중을 우롱하였다.

처창즈인민들은 ≪민생단≫으로 몰려죽고 굶어죽으면서도 적구로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유격구를 지켜세웠다. 그들이 발휘한 견인불발성과 백절불굴의 혁명적 기개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유격구해산문제가 일정에 올랐던 1935년 10월과 김일네 집안, 남창수네 집안, 이제순네 집안, 권일수네 집안을 비롯한 20여명에 달하는 ≪민생단≫연루자 가족들은 단합살림이라는 것을 뭇고 동남차골짜기 막바지에서 1936년 여름까지 투쟁을 계속 하였다. 그렇게 해서라도 ≪민생단≫투쟁을 벗어던지자는 것이었다. 단합살림이라는 것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살림으로 합치여 생활도 유지해가고 투쟁도 해가는 그런 특이한 생활방식을 말한다. 그들은 귀틀집 한채에 세간들을 합치고 책임자도 정하고 매일, 매주, 매달 각자에게 알맞는 분공도 주고 그 분공수행정형을 총화도 하면서 조직적인 생활을 하였다.

단합살림에 망라된 그 가정들은 마지막까지 처창즈를 지킨 최후의 방위자들이었다.

적들은 수천명 병력을 동원하여 군경들에 의한 종전의 초토화식 토벌일변도의 전술로부터 군사,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치는 종합적인 대봉쇄전술로 이행하여 처창즈를 완전히 압살해버리려고 토벌에 토벌을 거듭하였지만 그때마다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1935년 10월의 대토벌에는 수천명의 적이 투입되었다.

처창즈의 용감한 방위자들은 이번에도 적들의 침공을 영웅적으로 격퇴하였다. 그들은 저격무기로 유격구를 공습하는 비행기까지 쏴 떨구는 전공을 기록하였다.

그해 11월 처창즈 인민들은 유격구를 해산하고 군대와 함께 대부분 내도산쪽으로 이동하였다.

적의 봉쇄속에서도 오랫동안 인민들과 함께 굶어도 보고 앓아도 보고 싸워도 본 처창즈 방위자들 중의 한 사람인 백학림은 지금도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처창즈 사람들이 겪어온 항일전쟁시기의 참상을 모른다면 그 무슨 생활난에 대해서 감히 입밖에 내지도 말라. 처창즈의 군민이 봉쇄속에서 어떻게 기아를 이겨내고 추위를 이겨내고 적의 토벌을 이겨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어떤 곤란극복에 대해서도 감히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유격구해산의 조직과 그 실천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조직성과 강철같은 규율성,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백절불굴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그런 인민을 잘 동원하고 지도만 한다면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무한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어떤 인민이나 일단 죽음을 각오하고 불의를 쳐물리치기 위해 거족적으로 궐기한다면 그런 인민에 대한 봉쇄나 초토화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힘있는 교훈이다. 신생 로씨아에 대한 14개국 무력간섭자들의 국제적 봉쇄가 어떤 결과로 끝났는가 하는 것은 만국의 인민들이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히틀러 독일도 레닌그라드 봉쇄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폭탄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레닌그라드의 방위자들은 빵을 구워냈고 땅크를 만들어냈으며 생산을 추켜올렸다. 온 세계의 부르죠아지들이 레닌그라드가 함락될 것이라고 떠들던 1943년에 이 도시의 근로자들은 1942년에 비해 더 높은 생산능률을 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



조국통일은 자신의 사명이라 하시며

김상진 / 구국전선 제465호, 주체91(2001)년 1월 11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이라고 하시며 이 과제를 하루빨리 실현하는 것을 시대와 역사가 자신에게 부여한 필생의 사명감으로 간주하고 계신다.

주체 70(1981)년 9월 22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서거 32돌이 되는 날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지시찰의 길에 계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밤이 깊어지자 같이 수행한 일꾼과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행한 일꾼에게 우리 어머님처럼 조국통일을 바라신 분은 흔치 않을 것이라고 하시며 어머님께서는 백두산에서 고생하신 수령님을 잘 모시자면 빨리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분께서는 1940년대 말에 어머님으로부터 수령님을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길데 관한 말씀을 받은 자신께서는 80년대에 들어선 오늘도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단호하신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한다.

≪조국통일은 나의 사명입니다. 조국통일은 수령님 앞에서 책임진 나의 당면과업입니다.≫

조국통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간주하시기에 그분께서는 최근 몇년사이에만도 불후의 명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비롯한 수많은 조국통일에 관한 저작들을 발표하시어 겨레에게 필승의 신념과 낙관을 안겨주시고 통일운동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과 시행방도들을 휘황히 밝혀 주시었다.

그리고 주체85(1996)년 11월 24일에는 판문점을 찾으시어 그곳에 세워진 위대한 주석님의 통일친필비 앞에서 주석님의 유훈대로 우리 시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굳은 의지를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북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50주년을 맞으며 발표하신 불후의 명저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민족대단결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천명하시었다.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세계와 민족의 지지찬동을 받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도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조국통일영도와 노고, 확고한 의지의 빛나는 결실이다.

그러기에 우리 민중은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새해에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6.15공동선언관철투쟁에 결연히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

2002년 1월 1일호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공동사설중에서

올해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강렬한 통일열망을 안고 투쟁하여 온 지난해의 교훈은 북남공동선언이행에 민족자주통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민족자주통일의 지름길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 나가는데 있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 높이 치켜들고 모든 것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할 것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외세에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거세하는 사람은 민족반역자이다. 우리 민족은 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반테러≫의 명목밑에 감행되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의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다. 새 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 있는 정세하에서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호전세력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 호전계층들은 우리 민족의 드팀없는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대조선고립압살기도를 버려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조국통일의 전진도상에는 난관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 어떤 힘으로도 자주통일에로 향한 거세찬 민족사적 흐름을 절대로 가로 막을 수 없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있고 올바른 민족통일강령이 있는 한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새해 이북의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 ≪위대한 수령님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는 지금 각계 민중들속에서 커다란 공감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동사설에 제시되어 있는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우리 민족이 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갈데 관한 과제는 우리 민중으로 하여금 이북에 대한 동경과 조국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굳게 하여 주고 있다.

공동사설에 제시된 조국통일과제는 그 당위성과 진리성, 현실성으로 하여 7천만 겨레의 민족자주통일대행진을 힘있게 고무격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북의 신년공동사설에 제시된 조국통일과제를 올해 남북관계개선과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서 확고히 거머쥐고 나가야할 지침으로,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려는 온 겨레의 불같은 열망과 의지를 담은 민족공동의 과제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그에 전적인 지지와 그 실행에 총분기해 나설 불타는 결의를 표명한다.

이북의 공동사설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이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임을 명백히 지적하고 민족자주통일의 지름길이 바로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 나가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오늘 한반도의 구체적 현실과 우리 민족의 일치한 자주통일지향과 의사를 담은 지극히 공명정대한 주장이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교훈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구현해나가는데 민족자주통일의 운명이 달려있으며 이보다 선차적인 과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올해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높이 치켜들고 사대와 외세의존을 척결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며 모든 것을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복종시켜 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회 각계층 애국세력과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공동전선을 형성하며 내외 분열주의세력의 6.15공동선언말살책동을 걸음마다 저지, 분쇄해 나갈 것이다.

집권당국은 동족압살을 노린 주적론을 즉시 철회하고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을 당장 철폐해야하며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신년공동사설에서는 또한 한반도의 평화보장과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내외호전세력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으로 날로 전쟁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써 이 땅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주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길을 밝힌 정당한 주장이다.

전 민족이 단합하여 내외 호전세력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 세계평화를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우리는 내외 호전분자들이 반테러의 미명하에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 반북반통일책동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며 거족적인 반전반미투쟁으로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견결한 반미자주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북고립압살기도를 버려야하며 이 땅에서 침략군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한다.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난관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자주통일에로 향한 민족사적 흐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있고 올바른 조국통일 강령이 있기에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 한민전은 전국민과 함께 6.15공동선언의 기치 드높이 민족자주통일 대행진을 힘차게 벌여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이 되는 올해를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뜻깊은 해로 빛낼 것이다.

주체91 (2002)년 1월 8일
서울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자

정호일 / 구국전선 제465호, 주체91(2001)년 1월 11일



조국통일은 민족의 최대 소원이며 일치한 지향이다. 분단의 역사가 흘러갈수록 겨레의 가슴 속에 더욱더 증폭되어 가는 것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다.

하지만 우리는 꿈에도 소원인 통일을 이루지 못한채 또 한돌기의 연륜을 새기고 새 세기의 두번째 해를 맞이했다.

참으로 누구나 통일에 대한 절박감과 사명감을 무겁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민족의 사활적 요구이며 지상의 과제이다. 역사와 현실은 우리에게 말로만 외치는 통일이 아니라 과감한 실천투쟁으로 통일의 새 날을 앞당겨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난 1월 1일 이북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갈 것을 호소한 것은 참으로 시기적절한 통일과제 제시로 된다.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 이것이 올해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가 함께 수행해야 할 통일운동의 목표이다.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려면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7천만의 강렬한 통일열망을 안고 떠밀어 온 지난해 통일운동의 경험과 교훈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민족자주통일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족자주통일의 지름길은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정확히 구현해 나가는데 있다.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남과 북이 화합하고 단합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분단의 비극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번영의 새 역사의 장을 펼쳐 나가려는 7천만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여기에 6.15공동선언의 중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자주는 민족의 생명이며 민족문제해결의 근본원칙이다. 자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는 여기에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 지향과 염원에 걸맞게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자주가 민족의 생명이라면 그것은 전민족의 단합된 힘과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 담보된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이다.

민족자주에 통일이 있고 통일은 민족대단결에 있다. 남에게 의존하는 ≪통일≫은 예속이지 통일이 아니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이야말로 통일의 생명선이고 통일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룬다는 것은 통일문제해결에서 외세의존과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한다는 것이다.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 높이 치켜들고 모든 것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 민중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할 것을 노린 친미사대호전계층의 ≪주적≫론을 철회시키고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며 외세에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사대매국노들의 반역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각계각층 민중은 6.15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거세하는 사람은 민족반역자이다. 우리 민중은 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내외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어 버리고 남북관계를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지금 ≪반테러≫의 명목밑에 감행되고 있는 미제와 이 땅의 호전분자들의 반북, 반통일책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는 긴장상태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런 정세하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는 내외호전세력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할 것이다.

조국통일의 전진도상에는 난관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자주통일로 향한 거세찬 민족사적 흐름은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 온 세계가 21세기의 태양으로 우러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있고 올바른 민족통일강령이 있는 한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더 굳게 가지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통일의지와 경륜을 실현하기 위해 일로매진함으로써 새해에 기필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더 힘차게 들고 나가야 할 자주통일구호

로동신문 사설, 주체91(2002)년 1월 3일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심을 안고 새 세기의 두번째 해에 들어섰다. 지난 20세기 중엽에 시작된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를 어떻게 하나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끝장내고 조국통일념원을 이루려는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의지로 되고 있다.

새해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에는 우리 민족의 이러한 굳센 통일의지와 드높은 통일열망을 반영한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자주통일구호가 제시되여 있다. 이 구호에는 민족자주, 민족의 슬기와 힘에 대한 확신이 넘쳐 흐르고 있으며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뛰여넘어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이 몰아 오는 대결과 분렬의 역풍을 민족자주의 힘으로 단호히 물리치고 민족자주통일의 장엄한 진군을 다그쳐 갈 온 겨레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담겨 져 있다. 구호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안팎의 호전광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결정적으로 열어 나가기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에로 부르고 있다. 온 민족이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자주통일구호를 더 높이 추켜 들고 민족자주통일대행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 바로 여기에 6.15북남공동선언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구현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나라의 안팎의 정세로 보나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시대의 추세로 보나 지금이야말로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통일된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할 때입니다.≫**

조국통일은 민족자주위업으로서 민족공동의 노력과 투쟁으로써만 이룩할수 있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은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의 도수를 더한층 높이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대행진을 가로막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며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 엄혹한 현실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할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한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반영하고 있는≪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에는 온 겨레의 꺾을 수 없는 민족자주통일의지가 구현되여 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것만큼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 나가야 한다. 반세기가 넘는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는 조국통일은 오직 그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자기의 침략적리해관계로부터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외세는 절대로 조선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 줄 수도 없다. 미제가 민족자주통일선언인 6.15북남공동선언정신을 부정하고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나아가서 전 조선과 아시아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해 보려는데 있다.

6.15북남공동선언이 밝힌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통일문제를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침해할 수도 없다.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민족자주가 민족의 살 길이고 통일의 길이라면 외세의존은 분렬의 길이고 망국의 길이다.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조국통일문제는 외세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 민족주체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나라를 분렬시키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에 의존해서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뻔하다.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하는것은 민족분렬의 치욕을 자청하고 노예적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6. 15북남공동선언의 핵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다. 북과 남은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그런만큼 통일문제해결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그 문제와 관련하여 외세의 눈치를 보며 외세의 간섭에 굴종할 리유가 없다. 모든 민족성원들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투철한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반대배격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민족자주통일의 결정적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새해공동사설의 전투적구호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에 화답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광장으로 모두가 달려 나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에는 6. 15북남공동선언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리행하여 자주통일을 앞당겨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굳센 신념이 담겨 있다.

6. 15북남공동선언은 귀중한 민족공동의 전취물이다. 조국통일을 그 주인인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하자는 것이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다. 이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데 민족자주통일실현의 길이 있다.

새해공동사설에서 강조된바와 같이 6. 15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래일도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공격과 침해로부터 이 조국통일의 리정표를 견결히 옹호사수하고 철저히 리행하는데 민족자주통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민족자주통일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해 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 그들은 북의 ≪핵문제≫와 ≪미싸일문제≫를 걸고 누구에 대한 ≪강경≫을 떠들며 우리를 반대하는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무력을 증강하며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 놓는 등으로 정세를 긴장격화와 전쟁국면에로 몰아 가고 있다. 이것은 조선민족이 세운 조국통일의 리정표를 말살해 보려는 계획적인 도발이다. 공동선언말살행위는 곧 민족자주통일운동말살행위이며 나아가서 우리 민족에 대한 말살행위이다. 우리 민족은 힘으로 민족자주통일을 가로 막으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으며 결단코 그것을 저지, 분쇄해야 한다. 공동선언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가 고수하지 못하는가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좋게 출발한 민족자주통일기관차를 종착역까지 힘차게 몰아 가는가 아니면 도중역에서 멈춰 세우고 마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민족자주통일리정표를 사수하면 통일로 가고 사수 못하면 북남관계는 대결과 전쟁의 위험한 국면에로 치닫게 될것이며 결국 우리 민족은 영구분렬의 비극과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될것이다. 모든 민족성원들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도전으로부터 북남공동선언을 견결히 옹호고수해야 한다. 이것은 오늘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모든 조선사람들에게 지워 진 성스러운 투쟁임무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진실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그 누구나 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를 높이 부르며 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고 리행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우리 민족의 공동선언리행문제에 간섭해 나서는 미제를 비롯한 외세를 반대배격하는 투쟁의 불길을 높이 지펴 올려야 한다.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해치고 통일을 가로막는 암적존재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바다건너 제 소굴로 쫓아 내기 위한 투쟁을 중단함이 없이 벌려 나가야 한다. 남조선반통일세력이 공동선언정신에 맞지 않게 민족적대결과 긴장격화를 조장하는 ≪주적≫론을 철회하고 공동선언리행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철폐하며 조국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중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겨낼 수 없게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그래야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이 쪽을 못 쓰고 두손 들고 나앉게 만들 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에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려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투쟁정신이 비껴 있다.

미제와 남조선반통일세력들의 무모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공동선언리행의 앞길에는 더욱더 엄중한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이고 있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그 무슨 ≪테로지원국≫으로 몰아 대며 아프가니스탄 다음의 대상으로 삼을데 대해 내놓고 떠들고 있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위해 미국본토와 주변지역들에서 최신공격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이에 발맞추어 북남대화를 결렬시키고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책동에 피눈이 되고 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평화와 통일에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일시에 랭각상태에 처하였으며 새 전쟁의 위험은 시시각각으로 커지고 있다. 자기의 침략적리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민족을 참혹한 전쟁의 재난속에 바뜨리는 것쯤은 식은죽먹기로 아는 미제와 상전의 옷섶에 붙어 잔명을 부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남조선반통일세력이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을 짓밟고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의 불집을 터치는데로 나오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 나가는 기본담보는 온 민족의 과감한 투쟁에 있다. 안팎의 호전세력들을 반대하는 견결하고 완강한 투쟁이 없이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자주적평화통일을 론할수 없다. 미제가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르려 하는 것은 민족자주통일운동을 완전히 거세말살하고 우리 민족을 희생시켜 저들의 침략야욕을 세려는데 있다. 우리 민족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이 위험한 기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안팎의 호전세력들의 분별 없는 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것을 단결된 투쟁으로 짓부셔 버려야 한다. 그 길만이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고 민족자주통일의 궤도를 사수하는 길이다.

온 세계가 6. 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안팎의 호전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 민족을 지켜보고 있다. 정세는 엄혹하지만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를 높이 웨치며 투쟁에 나선다면 얼마든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들의 대결과 분렬, 전쟁도발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민족자주통일대행진을 계속 힘차게 벌려 나갈 수 있다.

6. 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것은 막을수 없는 민족적지향으로, 태세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없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여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은 밝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신심드높이 민족자주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있게 벌려 나감으로써 슬기롭고 용맹한 조선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고 이 땅에 통일된 주체의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구국의 소리, 주체91(2001)년 1월 12일~15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북은 새해 공동사설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서 올해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북의 공동사설은 지금 경향 각계층 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의 통일은 6.15공동선언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이행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할겁니다.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입니다.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의 염원을 이루지 못한채 새 세기의 첫해를 보내고 또 한돌기 두 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와 더불어 온 겨레의 가슴속에서 더더욱 끓어오르는 것은 이 해에는 어떻게해서나 6.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을 결의입니다.

6.15공동선언은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의해 마련된 민족공동의 투쟁강령이며 그것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왜 6.15공동선언이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평양상봉에서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 것은 민족자주통일의 새 세기를 열어놓은 민족사적 사변이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을 받아안음으로써 자주통일의 이정표를 가질수 있게 됐어요. 남북공동선언을 어떻게 이행하는가하는데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가 못하는가하는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문제해결에서 견지해야할 원칙적 문제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어요. 그런만큼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때에만 성과적으로 이룩되게 됩니다.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죠.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을 가져오고 반세기가 넘도록 분열을 지속시키고 있는 외세를 통일문제해결에 끌어들인다면 언제가도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과거사도 그렇지만 특히 지난해의 교훈이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매우 중요한 해였어요. 온 민족이 새 세기의 첫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되게 하기 위해 애국의 더운 피를 끓이며 열정에 바쳐 투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족보다 외세를 더 중시하는 한줌도 못되는 반통일세력때문에 민족의 고귀한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했어요.

지난해 새로 출범한 부시행정부는 대북적대시정책을 펴면서 남북화해과정을 파기하려고 악랄하게 책동을 했죠. 그럴수록 민족끼리 단합해서 민족의 화해분위기를 지키고 통일과정을 떠밀어 나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동족보다 외세를 더 중시하는 반통일사대매국집단이 침략적인 외세에 추종해서 통일운동에 제동을 걸어 남북관계개선이 지연되고 대화마저 결렬된채 새해를 맞지 않으면 안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온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주체의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해야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은 또한 통일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하고도 합리적인 방도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공동선언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모색하는데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라 하겠죠.

아시다시피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반세기 이상 걸쳐 굳어졌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제도통일을 실현하려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분열을 심화시키고 나아가서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 재난을 가져올수 있거든요. 현실적 조건에서 남과 북의 이 온 민족의 이익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는 방도는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을 실현하는 연방통일국가창립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방도는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남북공동선언은 또한 남과 북 사이의 신뢰와 화합을 이루고 민족대단합과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민족대단결선언, 통일지향선언이라 하겠습니다.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당면한 인도적 문제를 풀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와 문화, 체육과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발히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지난날의 반목과 대결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며 단결하여 통일에로 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것으로 돼죠. 이렇게 볼 때 6.15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라 하겠습니다.

6.15공동선언은 세계와 온 민족이 공인하는 우리 민족의 투쟁의 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남북공동선언에서 후퇴할 한치의 자리도 없는 거예요. 오직 공동선언을 운명구원의 무기로 쥐고 투쟁하는 것만이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고 번영하는 길인 거죠. 우리 민족은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로 굳게 뭉쳐 21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민족자주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거세하는 사람은 민족반역자로 됩니다. 6.15공동선언관철에 적극 참가해 애국자로 참삶을 빛내가실 민중 여러분일줄 믿습니다.

당국은 6.15공동선언정신에 충실해야

조연택 / 구국전선 제465호, 주체91(2001)년 1월 11일



지금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게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민족대단결로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더욱이 새해에 들어와 공동선언이행을 위해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내외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현실은 남북관계의 현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남당국이 매국배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자세와 입장을 버리고 시급한 결단을 내려 6.15공동선언정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외의 지탄을 받고 있는 당국은 남북관계개선은 안중에도 없이 외부에서 일어난 일을 걸고 이북의 그 무슨 ≪동향≫을 운운하며 취한 ≪비상경계조치≫를 아직까지 해제하지 않고 여기에 각종 전쟁연습까지 벌여놓고 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주적≫론을 고창하며 제6차 장관급회담을 결렬시키고 애국적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하면서 남북관계를 계속 긴장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결과 전쟁책동에 의해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는 엄중한 상황에 처하고 한반도의 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다.

이런 범죄행위가 지속된다면 언제 가도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으며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

현정부당국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반자주, 반민족, 반통일 책동을 즉각 걷어 치워야 한다.

남과 북사이의 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데서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통일선언이며 민족대단결선언이다.

공동선언정신에 충실하는데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길이 있다.

온 민족과 세계 앞에 확약한 6.15공동선언은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

공동선언을 위반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만고대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

정부당국은 나라와 민족 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간직하고 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동족과 공조하는 공동선언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현당국은 이제라도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고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을 막는 배신적인 행위를 그만 두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이북과 손을 잡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옳은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새해 신년글 발표와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1(2001)년 1월 9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범민련 남측본부는 1일 2002년이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비약과 전진의 해가 될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신년글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1년은 조국통일의 길에서 새로운 족적과 자취를 남긴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남과 북,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서로 만나 통일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공동행사들을 가지고 공동선언이행의 길에서 함께 투쟁해온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올해 2002년은 조국통일, 6.15공동선언이행의 길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열어야하는 중대한 해로 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2002년에는 6.15를 지지하는 자 애국이고 6.15를 반대하는 자 매국이라는 기치아래 6.15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사심없이 단결해야하며 전지역 방방곡곡에서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이를 확고한 민족적 대세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반미자주화운동을 활성화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서민대중의 생존권투쟁을 줄기차게 확대, 강화하면서 이를 반미자주화투쟁에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한편 미국의 전쟁확대움직임을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각계층 시민운동과 강력히 연대해 발전시켜 반미반전의 지향을 국민적 대세로 정착시켜야 한다.

2002년이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비약과 전진의 해, 청사에 기리 빛날 기념비적인 해가 될수 있도록 매진하자. 이 길에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언제나 선두에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6.15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해 통일의 문을 여는데 한몫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발현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각계층 민중은 민족자주권을 실현하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가로막아 나서는 것은 매국이며 민족반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따라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한 범민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고 있습니다.

민중들 속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는 때에 범민련 남측본부가 2002년이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비약과 전진의 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발표한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가는데 올해 조국통일운동에서 성과의 비결이 있고 투쟁의 **이 있는 것입니다.

경험은 남북공동선언을 거머쥐고 나가면 모든 통일사업이 잘되고 그에서 탈선하면 대결과 전쟁의 분위기를 고취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이는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통일운동발전에서 막중한 피해를 본 우리 민중은 공동선언을 자신의 **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통일세력이 날뛸수록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 억세게 거머쥐고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같은 의로운 단체가 있기에 우리 민중은 올해에 조국통일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각계층 민중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발표한 신년글에 적극 호응을 보내면서 시비하거나 망설이지말고 모두 일어나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파탄시키고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통일의 문을 여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을 6.15공동선언 실현의 결정적 해로 만들자≫

통일연대, 3차 ≪범국민행동의 날≫ 개최



≪2002년을 6.15공동선언의 결정적 실현의 해로 만들 것이다.≫

15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통일연대는 임오년 첫 번째 ≪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통일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2000년에는 합의.천명했고, 2001년에는 이를 꽃피워냈으며, 이제 2002년에는 6.15공동선언을 실현.성취하는 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범국민행동의 날에는 통일연대 소속 회원 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통일광장 임방규 대표는 통일연대가 발족해서 1년 동안 걸어온 길을 설명하고는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2년은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는 지난달 북측과 가진 ≪남북공동행사≫의 실무접촉 결과를 보고했다.

한상렬 상임대표는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는 등 한반도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2월 말 ≪남북공동행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집회장 주변에는 작년 8.15평양축전과 평양 시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서총련 선봉대는 주한미군의 고압선 피해자인 ≪전동록씨 사건≫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편에서 진행했다.

또한 통일연대 소속 회원들은 이날 시민들에게 ≪우리 민족의 힘으로 자주적인 통일을 이뤄 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홍보물과 함께 연하장을 나눠주면서 시민들과 만났다.

한편 노래단 ≪우리나라≫도 ≪경의선 타고≫, ≪어떻게 된거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자≫라는 노래를 공연해 집회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임오년 첫 번째 범국민행동의 날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며, 올해를 반드시 6.15공동선연을 실현하는 해로 만들자는 결의 속에 마무리됐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15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성명

지금 우리 민중은 미국의 조종하에 새해 벽두부터 신형미사일도입을 공표하고 북침전쟁준비에 광분하면서 올해에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염원에 도전하는 군당국의 작태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군당국은 미국으로부터 2004년까지 사거리 300킬로미터의 신형 다연장 전술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 111기를 도입할 것을 공개했다.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 미사일이 미국외에 그 어느 나라에도 도입되지 않은 신형살인무기이라는 사실이다.

군당국이 미국과 공모하여 새해 정초부터 신형 전쟁장비증강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정세를 고도로 긴장시켜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에로 몰아가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하며 나아가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는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군당국의 신형미사일도입책동을 미국의 대북침략전쟁전략에 편승해 동족을 압살하려는 천추에 용납못할 대범죄행위로, 6.15공동선언실천으로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7천만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염원에 정면 도전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로 낙인하고 이를 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오늘 이 땅에서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남북사이에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보장과 민족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초미의 과제이다.

그러나 군당국은 6.15공동선언이행을 표방하면서도 뒤에서는 미국을 등에 업고 반북대결전쟁책동으로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다.

동족에 대한 주적론을 공공연히 제창하며 북침전쟁연습을 배가로 증가한데 이어 또다시 국민혈세를 탕진해 최신형전쟁장비들을 대량 끌어들이려는 한국 호전광들의 무모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는 새 전쟁위험이 날로 커가고 남북관계는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대행진은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군당국의 신형미사일도입책동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계획적인 도발행위로써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불가능한 사태발전에 대해 자신들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군당국은 온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살인무기도입책동을 당장 중지해야하며 외세와의 공조로 동족모해압살을 꾀하면서 6.15공동선언실천을 향한 민족의 앞길에 먹구름을 몰아오는 반역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북침기도를 버려야 하며 이 땅에서 침략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전국민은 6.15공동선언의 기치 드높이 일치단결하여 미국과 그와 결탁한 호전세력의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반전반미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한민전은 평화와 통일을 귀중히 여기는 전국민과 함께 견결한 반전반미투쟁으로 전쟁위험의 화근을 제거하고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며 조국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앞당겨오고야 말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 (2002)년 1월 14일
서울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담화(대변인 보도 17호)

올해는 6.15공동선언발표 두해째 되는 해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90돌이 되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신 60돌이 되는 올해를 조국통일을 위한 비약의 한해로 빛내여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철석같은 통일의지와 원대한 통일방략의 구현이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강령이며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6.15공동선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6.15공동선언은 그 발표 이래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그날까지 통일의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는 불변의 통일강령이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선언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그 어떤 통일방해세력도 물리칠 수 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는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원칙, 기본방도이다.

6.15공동선언이 이행되어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되면 연방제는 낮은 단계에서 실현된다. 민족통일기구는 조국통일을 위한 교두보이며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되면 조국통일은 비약적 국면을 맞게 된다.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그 길에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지름길이 있다.

6.15공동선언은 오늘 내외 반통일세력의 온갖 방해책동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

부시정권은 대북압살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있으며 아프간전쟁의 기세를 몰아 대북전쟁을 도발하려 하고 있다. 부시정권은 이회창패당과 함께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이남에는 여전히 보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정보원과 공안검찰, 공안경찰이 통일애국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현실은 내외 반통일세력의 전쟁책동과 파쇼도구들을 철폐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6.15공동선언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15공동선언실현운동은 반미자주화운동, 민주화운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전개되어야 한다.

올해에는 양대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이다. 대선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 집권하면 조국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면이 창출된다. 양대 선거는 통일애국세력과 반민주반통일세력 간의 사활적 투쟁의 장이다.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세력은 예외 없이 친미분자이며 극우파쇼분자이다. 오늘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기본타격목표는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친미극우보수세력이다. 친미극우보수세력의 존립근거이자 최대무기는 바로 보안법이다. 6.15공동선언실현투쟁이자 친미극우보수세력타격투쟁이며 보안법철폐투쟁이다.

6.15공동선언이 실현되면 보안법은 설자리를 잃고 반민주반통일세력은 더욱 고립되며 미군철거와 연방제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마련된다. 오늘 우리 민족민주대오의 모든 투쟁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데로 지향시켜야 한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각계 애국민중과 함께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통일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 올해를 승리와 비약의 해로 빛내일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1(2002)년 1월 12일
서울

오늘의 김혁, 김책이 되자

통일여명 편집국 통보 (편집국 보도 37호)

≪김혁의 불같은 성격은 혁명실천에서 충실성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높은 책임성과 충실성을 지닌 혁명가였다.≫(**김일성**주석, 세기와 더불어 제 2권)

≪나는 경제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공장, 기업소들을 볼 때면 속으로 김책이 만일 이걸 안다면, 김책이 만일 이걸 안다면 하는 생각을 하군합니다. 그가 산업상으로 일할 때 우리 나라 경제는 치차처럼 잘 맞물려 돌아갔습니다.≫(**김일성**주석, 세기와 더불어 제 8권)

오늘의 김혁, 김책이 되자! 이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이 심장에 새겨야 할 올해의 구호입니다.

혁명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높이에서나 과업에 대한 책임성의 높이에서나 김혁, 김책 동지는 주체주의자의 전형입니다.

김혁동지는 열정의 화신입니다. 열혈의 동지 김혁은 교양조직사업과 창작, 기관지사업에서 언제나 열정에 넘쳐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얼빈시조직사업도 ≪조선의 별≫창작도, ≪볼셰비키≫제작도 이루어졌습니다.

김책동지는 탁월한 수완가입니다. 김책동지는 항일투쟁에서나 조국전쟁에서나 경제건설에서나 발군의 조직적 수완을 발휘하며 주어진 과업을 언제나 책임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김책동지가 없는 북만유격대와 전선사령부, 해방직후의 경제건설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90돌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신 60돌을 맞이하는 참으로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반드시 통일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일대 비약의 한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 다 신념과 의지의 강자가 되어야 하며 열정의 화신, 탁월한 수완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체의 혁명관이 확고하고 열정적이며 수완 있는 활동가, 바로 오늘 조국이 요구하는 혁명가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김혁, 김책 동지와 같이 수령에 한없이 충실하고 유능한 조직선전가, 작전가가 되어 조국통일을 위해 많은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청년주체주의자동지들에게 보내는 통보였습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년 1월 15일
서울

북측 ≪새해 맞이 통일대회 2월20일께 열자≫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북한이 설 맞이 남북공동행사와 관련, ≪개최시기는 내달 20일께로 정하고 대회 명칭은 ≪통일을 염원하는 2002년 새해 맞이 통일대회≫로 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남측에 보내왔다.

11일 ≪2002년 설맞이 공동행사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이날 낮 남측에 팩스를 보내와 이렇게 제의했다.

북한 민화협은 또 ≪대회 명칭 문제는 2차 실무접촉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2차 실무접촉은 1월 말에 갖되 접촉 장소문제는 다시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북한 민화협은 이어 ≪2차 실무접촉에 참가할 남측 인사들의 인적사항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설 맞이 공동행사 준비행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북측이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 이런 제안을 해온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더 논의해야겠지만 양측간의 이견이 거의 해소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애초 2차 실무접촉에 참가하기로 했던 남측 인사는 남측 민화협의 조성우, 변진흥, 한상렬, 이승환씨 등 4명이라며 15일께 내부 논의를 거쳐 참가 인사의 인적 사항을 북측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남북은 설(구정)을 맞아 ≪설 맞이 공동행사≫를 여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북측이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일) 행사 등을 감안, 남측이 제의한 2월초에 이 행사를 열기가 어렵다면서 ≪행사를 2월말에 열자≫고 주장했다.



북한문학 소개하는 ≪통일문학≫ 창간 예정

북한문학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계간지 ≪통일문학≫이 창간될 예정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문학을 통해 분단과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는 취지로 오는 2월 하순경에 발행될 예정인 ≪통일문학≫은 김주팔씨가 발행인을, 정중수씨가 편집장을 맡았다. 또한 편집위원으로는 권영민, 이명재, 박태상, 김재용, 김동규 교수 등이 참여한다.

특히 김주팔 발행인은 지난해 2월 8일 서울역 근처에 우리나라 최초이면서 유일한 북한책 전문서점인 ≪대훈서적 북한서적 전시관≫을 열어 세인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김주팔 발행인은 북한책 전시관을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1013호로 이전해 오늘(10일) 개소식을 가졌다. 또한 새로 이전한 전시관에는 ≪통일문학≫ 편집실도 마련해 문을 열었다.

김주팔 발행인은 ≪통일을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통일은 책속에 있다≫고 자신의 통일관을 피력했다.

다음은 김주팔 발행인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통일뉴스 : ≪통일문학≫을 창간하게 된 계기는.

■ 김 발행인 : 지난해 개관한 북한서적 전시관을 통해 전국의 북한학 관련 교수, 학생들을 많이 만났다. 그분들이 서울역보다 대학로 부근에 전시관을 옮기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전시관을 이곳으로(기독교회관) 옮기게 됐다.

또한 그분들 중에는 책만 가지고는 안 된다며 ≪통일문학≫과 같은 잡지, 즉 북한 문화와 책을 소개하는 잡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통일문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그래서 ≪통일문학≫을 준비하게 됐다.

지금은 계간지이지만 반응이 좋으면 월간으로 바꿀 것이다.

□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셨는지.

■ 지난해 7월 6일 등록을 하고 9월부터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다.

□ ≪통일문학≫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 ≪통일문학≫은 ▲50%는 북한 문학을 소개하는 란이고, ▲한국에서 사는 북한 문인들이 남북 문화를 비교하는 란, ▲해외 동포들이 통일문제(민족문제)를 보는 시각, ▲북한 문학사 연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통일문학, 남북문학 등을 비교, 연구, 분석한 내용이기에 북한문학을 연구하는 학생과 학자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연구가 초기 단계이기에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학자들의 몫이고 나는 이를 뒷받침하는데 보람이 있다.

□ ≪통일문학≫이 다른 계간지와 차별성이 있다면.

■ 북한 문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심층연구해서 심도있는 분석, 평론을 하는 것이 차별성이라면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다.

□ 전시관을 확장이전 했는데 이전과 달라진 게 있는지.

■ 지난해 12월말에 평양과 ≪조선대백과사전≫을 독점 계약했다. ≪조선대백과사전≫은 94년부터 7년 걸려 완성된 것인데 전 30권이다. 지난해 6월까지 22권 (남한에) 들어왔는데 나머지가 1월 25일경에 들어온다. 이 책을 통해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철학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가장 최근 정보를 볼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통일교육의 필수 자료로서 교사들의 호응이 크며 북한학 전공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수요층이 넓을 것으로 본다.

현재 전시관에는 150여종 3천 권 정도가 있다.

□ 북한서적 전시관을 하면서 보람과 아쉬움이 있었다면.

■ 지난해 박태상 교수가 우리가 제공한 ≪리기영 ≪러시아 기행문집≫≫을 연구해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참 보람이 컸다.

북한서적은 판매가 아니고 배급제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아니면 구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희귀 자료를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때마다 북한을 제대로 알리는데 일조했다는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북한책을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도 보수적인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차별화하는 것이 아쉽다. 북한책을 실제 봐야 북한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길이 막혀있다는 게 안타깝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문학≫에 북한학 학자들이 힘을 모은 것이 그 이유이다.

□ 통일에 대해서는.

■ 연변의 조선족(우리 동포)을 남쪽에서 포용하고 그 조선족들이 북한사람을 설득한다면 직접 북한 동포에게 잘 못하지만 그들도 우리에 대해 알지 않을까...

통일은 인간적으로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문학 작품은 사람 사는 모습을 담고 있다. 따라서 북한책을 읽으면서 간접체험을 하고 이를 통해 북한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진짜 꿈은 평양에 우리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책의 교류를 통해 남북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문학이 남과 북을 오가고 이를 통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통일은 빨리 올 수 있다고 본다. 통일의 길은 책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10

민주노총, 2001년 조합원 통일의식 조사결과 발표

민주노총 조합원 56.8%, ≪노동자가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56.8%는 민주노총 통일사업에 대해 ≪노동자가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달 동안 실시한 ≪2001년 조합원 생활실태 조사≫ 중 통일관련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의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통일축구대회≫와 ≪금강산통일토론회≫,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 등과 같은 남북노동자 자주교류 및 통일운동에 대해 민주노총 조합원 56.8%는 노동자가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훌륭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미군에 대하여서는 당분간은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악의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62.8%로 나타났다.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우리민족의 가장 큰 과제인 통일을 현실화한 것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의견이 33.8%로 나온 반면 ≪남과 북 정부당국자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미를 제한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도 28.7%로 나왔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무작위 추출하여 164개 노조 4,000명의 표본을 설정하고, 이중 유효설문지 739부(18.5%의 수거율)를 통계처리 한 것이다.

한편 김영재(민주노총 통일위) 통일국장은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의 일반적 의식이 반영됐다고 본다≫면서 ≪민족민주운동이 주장해온 내용들이 확인되는 측면이 있고 또한 미국에 대한 민족자주의식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재 통일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일반 조합원의 의식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은 처음≫이라며 ≪객관성 있는 자료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설문조사 내용 요약]

남북노동자 자주교류 및 통일운동 (단위:%)

노동자가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훌륭한 계기를 만들었다(56.8)

임단협, 구조조정 등 현안이 바쁜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이었다(13.3)

북한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11.8)

관심없다(10.4)

미국의 보복전쟁, 한국의 분담금 지원(단위:%)

미국 군수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보복의 악순환과 양민학살 우려가 있어 반대(41.0)

미국의 보복전쟁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반대(22.1)

보복전쟁과 파병은 반대하지만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분담금 지원은 동의(20.3)

보복전쟁 동참은 국익과 테러척결을 위한 정당한 행위(8.5)

주한미군(단위:%)

당장 내 보내야할 분단과 예속, 범죄의 근원이며 통일의 걸림돌(15.6)

전에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존재(11.5)

당분간은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야할 필요악의 존재(62.8)

꼭 필요하므로 통일이후에도 그대로 주둔(2.3)

6.15 남북공동선언(단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인 통일을 현실화 한 것으로 환영하고 지지(33.8)

남과 북 정부 당국자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미가 제한적(28.7)

정상회담은 필요하나 그 내용이 북에 끌려간 것으로 파기(14.9)

한국전쟁, KAL기 폭파사건 등에 대한 사과없이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한 것은 잘못(10.4)

민주노총이 추진해야 할 통일사업(단위:%)

반미자주사업(8.7)

남북교류협력 확대(51.3)

주한미군철수 사업(4.5)

국가보안법철폐사업(18.7)

기타(4.3)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15

국방부, 미국으로부터 다연장 전술지대지미사일을 구입하기로

구국의 소리, 주체91(2001)년 1월 12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국방부는 4일 오는 2004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 사정거리 300킬로미터의 중거리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 111기를 구입하기로 지난달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미사일이 이미 육군에 도입돼 있는 사정거리 165킬로미터의 구형 미사일보다 우월하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군비경쟁을 일으키고 대결과 긴장을 더한층 고조시키는 위험한 불씨의 하나로써 매우 큰 우려를 자아낸다 하겠습니다.

군부당국은 오래전부터 북에 있지도 않는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들며 그를 구실로 미국의 사주하에 북의 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신형 미사일개발책동을 본격적으로 벌여왔습니다.

군당국이 미국상전에게 18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던 저들의 미사일의 사거리를 느리게 해달라고 애걸한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후 미사일협상에서 군부는 상전으로부터 300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에 대한 개발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함께 군부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각종 현대적인 미사일과 관련한 기술을 닥치는대로 끌어들이면서 미사일개발을 미친듯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이것도 부족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미국으로부터 다연장 전술지대지미사일을 구입하기로 한 것은 간단히 책임할 문제가 아닙니다.

군부가 새로 구입하기로 한 미사일은 다름 아닌 북침선제타격을 위한 공격수단입니다. 군부는 다연장 전술지대지미사일과 같은 신형공격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북을 미사일로 위협하고 임의의 시각에 이북 전지역에 미사일선제타격을 가하자는 속셈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군부는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에도 미국과 함께 북침을 위한 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군부의 미사일구입과 계속되는 북침전쟁연습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새로운 단계에로 격화시키고 북침전쟁위험성을 더한층 고조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제반 사실은 한반도에서 통일을 반대하고 남북대결과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기본장본인인 다름아닌 미국과 군부집단이라는 걸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각계 애국민중은 군부집단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반전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각계 민중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 반전투쟁을 중단없이 벌여나간다면 능히 군부집단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군부집단은 많은 자금을 탕진하면서 신형 미사일들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파멸에 직면한 경제를 살리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제하는데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가 군사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1(2001)년 1월 12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부가 밝힌데 따르면 국방부가 오는 2005년에 군사위성을 제작해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부는 지난해말 군사위성 공동발사를 위해 공동투자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군부호전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또하나의 도발선풍, 북침전쟁책동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사위성으로 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군의 군사동향을 탐지해 전쟁에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찰위성입니다.

한반도정세로 보나 주변나라들의 관계로보나 그것이 이북을 겨냥한 반북전쟁책동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군사책동과 이북에 대한 *****가중되는 속에 벌어지고 있는 군부호전집단의 이같은 반북적대책동은 민족의 장래운명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미국과 군당국의 이같은 북침전쟁책동이 모처럼 마련된 6.15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대결과 전쟁만을 초래케 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야말로 6.15공동선언이행을 통한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난폭한 도전행위인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군부호전집단은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편승해 지난해 국방비를 그 전해보다 대폭 늘린 15조9754억원으로 정하고 2001, 2005년도 국방증기계획을 통해 차기전투기, 육군 차세대공격헬기, 무인정찰기, 차기유도무기, 이지스구축함 등을 대거 끌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들여 차세대전투기, 공격용헬기, 미사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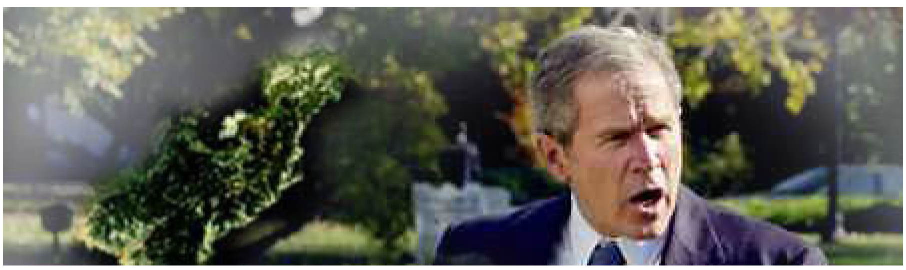
뿐 아니라 군부호전집단은 지난해말 이북을 또다시 주적으로 선포하고 새해 벽두부터 대량살상무기인 신형 다연장 지대지미사일 110여기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북을 겨냥한 군사위성까지 제작, 발사하기로 한 것은 북침전쟁에 환장이 된 군부호전집단의 반역적 정체를 더욱 뚜렷이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군부집단의 이같은 책동은 남북의 화해와 통일로 향한 6.15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고 민족의 머리위에 전쟁의 참화를 덮씌우려는 희세의 민족반역행위로써 절대로 묵과할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은 군부호전집단의 전쟁책동을 묵인할 경우 초래될 엄중한 악결과에 대해 똑바로 알고 일치단결로써 군부집단의 반민족행위를 용서치말아야 할겁니다.

군당국자들은 시대의 흐름과 우리 국민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온 민족의 더 큰 저주와 규탄을 받기전에 군사위성발사를 비롯한 북침전쟁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미군은 노근리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이 땅을 떠나라

1. 한국전쟁 당시 미군 소속 병사였던 조지 얼리에 의해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이 미군의 ≪사격 명령체계에 따른 학살≫이었음이 밝혀졌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을 은폐·왜곡하려 했던 미국과 미군 그리고 한국정부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2. 한미 양국은 노근리 학살 피해자·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지난해 1월, ≪한미 양국조사단≫을 구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만을 인정한 채, ≪사격 명령체계에 따른 학살≫은 철저히 부정하였다. 당시 ≪한미 양국조사단≫ 구성은 진상규명보다는 민간인 학살을 철저히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을 우롱한 한국과 미국의 협작이었다.



3. 얼리가 생존피해자에게 쓴 사죄편지에 따르면 노근리 민간인 학살 이후, 51년 동안 고통속에서 살아왔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사살을 거부한 병사에게는 부대 중대장으로부터 처형의 위협까지 받았다고 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과 인륜마저 짓밟아버리고 사람들의 목숨을 한낱 미물로도 여기지 않는 야수와 같은 행동을 미국은 서슴지않고 자행한 것이다.

4. 정부는 민간인 학살에 대해 민족적 자존심을 걸고 진상규명과 배상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명예회복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당장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프간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미군 만행이 얼마나 잔혹스럽게 진행되고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다. 이 땅에 발을 붙인 이후 범죄만을 일삼는 주한미군은 지금 당장 미국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2년 1월 15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장대현 011-9707-5435 김광균 017-658-9769)

부평미군기지반환 농성 600일 맞이 기자회견

2002년을 부평미군기지 반환의 해로 선포한다

올해로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시작한지 6년째를 맞이한다.

1996년 5월 18일 부평미군기지 반환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포하던 당시 부평미군기지 문제는 누구도 건드리기 쉽지 않은 성역이었으며, 반환 운동 자체가 온몸을 던지지 않으면 안되는 두터운 벽이었다. 그 이후 꼬박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운동을 전 시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켰으며, 부평미군기지 반환 운동은 전국적인 미군기지 반환운동의 불씨를 당기는 근거지로써의 역할을 해왔다. 그 한가운데는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의 조직적 결실인 인천시민회의와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가 있었다. 96년 이후 부평미군기지 반환 운동에 동참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때까지 미동조차 하지 않던 인천시와 부평구를 시민들의 입장에 서게끔 강제했으며,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당한 운동으로 발전시켜 놓은 것이다.

지난해 인천시민회의와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는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높여내기 위해 1만인 선언운동, 24시간 시민감시단 활동, 2,000명이 넘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한 8 · 11 인간띠잇기 행사 등을 개최하였다. 끊임없이 이어졌던 이런 활동들은 지금까지 그저 바라보며 지지하던 시민들의 걸음을 한껏 재촉시키며, 함께하는 시민운동으로 성큼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폭발적인 운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미국은 지난해 있었던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와 그곳에서 논의되었던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 Ship)에 따른 미군기지반환≫ 논의에서 부평미군기지를 제외시키고 말았다.



이 모두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주적이지 못한 입장으로 일관한 한국정부의 태도와 오만한 미국의 자세가 만들어낸 결과다. 더욱이 최근 인천시와 부평구는 부평구의회가 제정한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주민투표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해야 하는 자치단체 마저 반시민적 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그리고 매서운 추위와 싸워야 하는 농성은 오늘도 이어져 꼬박 600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농성장에는 오늘도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민회의와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는 이제까지 모아온 시민들의 이와같은 마음을 모두 모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반환운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 올해 2002년을 ≪부평미군기지 반환의 해≫로 선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와 한국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지금과 같은 행동으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바라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이제 누구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펼치는가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의 1평 남짓한 이 농성장이 16만평의 넓은 부평미군기지를 되찾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운동 6년째와 농성 2년째를 맞이하는 올해, 시민승리의 격동적인 장면을 목격할 수 있도록 총력 매진할 것이다.

2002년 1월 14일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

≪전동록씨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 문제≫



≪전동록씨 문제는 이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전동록 대책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 920호 병실에서 지난 해 연말부터 모금한 치료비를 전동록씨에게 전달했다.

병상에 누워있는 전동록씨를 보면서 홍근수 자통협 공동대표는 민족 문제가 되고있는 이 사건을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야 알게 되었지만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동록씨를 격려했다.

또한, 천영세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역시 ≪사회단체들이 전동록씨 문제를 뒤늦게 알았다. 앞으로 각계각층으로 문제를 확대시켜 적극적 대응을 할테니 힘을 내시라≫며 전동록씨의 기운을 북돋웠다.

현재 왼쪽 귀는 기능을 상실하고 나머지 한쪽 귀마저 잘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전동록씨는 이 같은 격려의 말에 ≪고맙습니다≫는 말로 크게 대답을 했다.

잠시 후 전동록씨의 부인 이명화씨에게 모금된 성금이 전달되었고, 이명화씨는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고, 세상에 아들과 단 둘 뿐인 줄 알았는데, 마음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동록씨는 양팔과 양다리가 절단된 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신부전증과 장기손상으로 식사조차 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모금활동을 진행했던 전동록 대책위 이정우 집행위원장은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치료비 모금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2월 초 파주대책위에서 개최하는 사진전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이정우 집행위원장은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월급을 모아 모금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며, 이를 파주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현재 전동록 공대위는 주한미군과 건축주를 대상으로 ≪치료비 가처분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전동록씨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면서 모금활동을 진행중에 있다.

전동록씨는 지난 해 7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뇌조리 캠프하우즈 미 제2사단 공병대대 후문옆 대우제판 카메라 조립식 공장 증축현장에서 작업중에 미군부대 22,800볼트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었다.

한편, 이번 전동록씨 문제는 사건발단의 원인이었던 주한미군의 나선형 고압선이 파주뿐만 아니라 성남과 평택에도 있어 향후 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장동렬 기자 (dlja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10

≪함께 꾸는 꿈은 현실로 됩니다≫

≪제28차 미대사관 반미연대 집회≫ 열려



≪여러분,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 함께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바람 나고 당당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평화지기 박순희 공동대표는 경찰과의 몸싸움 후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집회 참석자들을 이렇게 독려했다.

15일 오후 2시, 광화문 미 대사관 옆 시민 열린마당에서는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제28차 미대사관 반미연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평소와는 다르게 대우자동차 판매직 노동조합 소속의 노동자 200여명이 참여해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경찰측은 ≪미대사관에서 100미터 이내 거리에서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다≫면서 집회를 원천봉쇄하려 했고, 주최측은 ≪이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무슨 소리냐≫며 집회를 강행하려 했다.

결국, 김용환(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집회에서 문정현(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 신부는 개회사를 통해 ≪노동자가 해고되는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 기인한 것≫이라며 ≪주한미군철수 투쟁에 우리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대해 대우자동차 판매직 노동조합 전병덕 위원장은 ≪미국이 자기들에게 아부하는 정권을 세워놓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땅에서 물러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회는 전병덕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들과 집회참가자들간의 심한 몸싸움으로 계속 진행될 수가 없었고, 집회참가자들은 자리에 앉아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20여분 후 다시 시작된 집회에서는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의 용산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반대 발언과 주한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사건 경과보고,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다함께≫의 미국의 아프간전쟁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공연 예정이던 랩그룹 ≪셰익스피어≫는 음향문제로 공연을 하지는 못했지만, ≪외국군대가 주둔해 있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많이 모르는 젊은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밝혀 집회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대우자동차 판매직 노동조합 박선용(34, 남) 조합원은 ≪GM사 반대투쟁을 하면서 반미연대집회에 나오게 되었다≫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결국 미국의 입맛에 맞게 우리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미국을 성토하기도 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집회는 몸싸움 과정 중 연행된 9명의 참가자들이 풀려나오면서 마무리되었다.

28차를 맞이한 이날 반미연대집회는 그동안 흔히 볼 수 없었던 사업장 중심의 노동자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끌었다.

장동렬 기자 (dlja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15

통일의 방해자

지식인 김지호씨 / 구국의 소리, 주체91(2001)년 1월 12일~15일



6.15공동선언발표후 겨레의 통일열망이 활화산처럼 타번지고 있습니다. 겨레의 이같은 통일열망과 배치되게 반통일역적들의 통일방해책동이 계속되고 있어서 각계 민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통일의 방해자≫ 지식인 김지호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이다. 하기에 7천만 우리 겨레는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여왔고 그 길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이후 지난해에만도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노동자들의 5.1절 기념공동행사와 남북농민들의 통일대회가 성대하게 벌어졌고 6.15민족통일대토론회가 진행됐다. 8.15광복절을 계기로 평양에서 남과 북, 해외가 한자리에 모여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가장 의의깊게 거행하는 등 민족화합과 조국통일운동에서는 특별히 주목할만한 성과들이 이룩됐다. 그러나 냉전수구세력은 여전히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해 남북대결과 반통일책동에만 집착해왔다.

특히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발악적인 반통일책동은 우리 민중과 세인의 지탄과 배격을 받기에 충분하다. 까마귀 백번 울어도 까욱 소리밖에 나올 것이 없다고 이회창의 입에서는 언제 한번 민족적 화합과 조국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희세의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그의 태도만 놓고봐도 그렇다. 통일이라는 말만 나와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악을 쓰며 달려드는 이회창은 북에 대한 주적론을 연발하면서 법적 대응체제가 필요하다느니 국보법을 개정하면 국론분열이 일어난다느니 뭐니하며 국보법철폐에 대한 시기상조론을 떠들었다. 심지어 악법도 존중해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거리낌없이 했다. 그가 앞뒤도 맞지 않는 그런 망발을 어떻게 서슴없이 하게 됐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시비를 갈라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자면 6.15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돼야한다.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이고 통일의 이정표이다. 겨레가 그 이정표대로 가자면 외세와 야합해 동족을 모해압살할 것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하며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기에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국보법의 즉각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여야의 많은 정치인들까지 같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 통일이 이룩될수 없는 것은 물론 국민의 초보적인 자유도 보장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이 국가보안법을 계속 유지해야한다고 떠들고 있는 것은 그가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희세의 반민족, 반통일역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기야 군부독재시기부터 법관의 감투를 쓰고 수많은 애국민중을 이 반통일파쇼악법에 걸어 처형하면서 출세해온 이회창이고 보면 국가보안법철폐가 자기의 명줄을 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때문에 이회창은 국가보안법유지에 그처럼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통일운동에 대한 차단과 무차별적인 탄압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이회창은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통일인사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하기 위해 별의별 험담을 다했다. 8.15를 계기로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해 놀아난 이회창의 언행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이다. 축전 자체를 달갑지 않게 여기던 이회창은 평양에서의 통일대축전이 성과리에 진행되자 축전장소와 만경대방명록문제를 걸고들면서 무슨 돌출사건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적화통일전략이니 소환권고장에 동조한 것이라느니 망신이니 뭐니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탄압을 고창했다. 의로운 활동을 하고 돌아온 방북인사들이 공항에서 연행, 폭행당하고 그들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갔다. 50년대 미국사회를 불안과 공포, 테러의 난무장으로 만들었던 매카시즘소동이 그대로 재현됐다. 그 광적인 반통일탄압소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판 매카시즘소동의 장본인인 이회창이야말로 남북대결에 혈안이 돼 있는 극악한 반통일분자이다.

남북대결과 반통일책동에 광분하는 그의 목적은 민족의 영구분단과 남북대결속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대권을 이루어보려는데 있다. 권력욕에 환장한 이회창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백해무익한 존재이다. 이회창을 정치권에서 매장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 민중은 돌이킬수 없는 악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론은 명백하다. 천하에 둘도 없는 반통일분자 이회창을 역사의 오물장에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너도 나도 동참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새해를 맞으면서 더욱 굳게 다져지는 민중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네, 대세의 흐름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역적들이 제아무리 민족의 통일대행진을 막아보려고 해도 그것은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겁니다.

대북모략의 소굴 국정원은 해체돼야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1(2001)년 1월 7일～8일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도 어느덧 햇수로 3년째에 들어섰습니다. 그간 남북간에는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해 교류와 접촉, 왕래가 빈번히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통일분위기와는 상반되게 대북모략의 소굴인 국정원이 아직도 버젓이 존재하면서 반북모략을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엔 지난 시기 국정원이 감행한 ≪수지김피살사건≫의 진상이 또 드러나서 내외의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대북모략의 소굴 국정원은 해체돼야한다≫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국정원의 대북모략극의 진상이 드러나 내외를 경악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87년에 있은 ≪수지김피살사건≫입니다. 수지김피살사건의 조작과 은폐는 87년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이 주도했고 2000년에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김승일 전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의 요청에 따라 전격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수지김피살사건으로 말하면 당시 안기부가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지김을 살해하고는 살인범인 그의 남편 윤태식을 납북미수라는 공안사건으로 조작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수지김을 살해한 진범인은 한미당국자들이며 그 하수인은 당시 안기부장이였던 장세동입니다. 그것은 안기부가 살인범 윤씨를 월북자로 가장시키기 위해 싱가포르 주재 북의 대사관과 미국대사관을 거쳐 이남의 대사관에 들리도록 하고는 기자회견에서 윤씨가 미국대사관을 거친 사실을 숨기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수지김에 대한 살인사건이 한국단독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미국과 공모결탁한 살인사건이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안기부는 저들의 살인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최광수 당시 외무부장관에게도 수지김피살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이 아닌 대공사건으로 현지 기자회견을 감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실로 정부위의 정부 무소불위의 안기부의 권능을 보여주는 오만한 전횡과 횡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국정원의 파렴치한 작태입니다.

수지김을 살해한 범인이 드러나고 그것이 안기부의 대북모략사건의 조작품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내사를 중단시켰을뿐 아니라 사건관련기록을 휴지화한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안기부나 오늘의 국정원이 한꿍꿍이이고 **와 **의 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국자들은 입을 벌릴때마다 국정원이 과거와는 달리 권능이 변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번 수지김피살사건의 진상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는 것처럼 국정원은 과거 역대정권하에서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와 마찬가지로 대북모략의 소굴, 본산지로써 여자를 남자로 만들지 못하고는 그 어떤 악한 짓도 다하는 막강한 권능을 소유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각종 모략사건을 조작해 그것을 이른바 북의 소행으로 몰아붙임으로써 국민들속에 대북경계심과 대결감정을 고취하는 것이 오늘의 국정원입니다.

대북모략의 근거지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개선이나 나라의 자주통일위업도 실현할수 없습니다.

통일의 암적존재 국정원은 지체없이 해체돼야합니다.

국민 각계는 반민족, 반통일의 장애물인 국정원해체를 위한 투쟁에 과감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올해 조국통일운동에서 진전을 가져오려면 반북모략의 소굴인 국정원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을 동시에 벌여나가야하는 거겠죠.

반민주, 반통일파쇼폭압기구를 즉각 철폐하라

박종철고문치사사건 15주년과 현실

진정철 / 구국전선 제465호, 주체91(2001)년 1월 11일



오는 1월 14일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문학과 3학년 학생이었던 박종철열사가 파쇼경찰의 야수적 고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지 15주기가 되는 날이다.

지금 우리 민중은 국민을 공포와 불안 속에 몰아넣고 괴롭히는 반민주적, 반통일적 폭압기구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짓밟힌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통일독립된 새 사회를 안아오기 위한 반미반파쇼투쟁에 나섰던 박종철열사!

그는 1987년 1월 14일 파쇼경찰에 불법연행되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짐승도 낯을 붉힐 잔악무도한 파쇼교형리들의 고문을 받다가 무참히 살해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1살이였다.

열사의 죽음은 그때 당시뿐아니라 오늘까지도 우리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슬픔과 분노로 구천에 사무쳐 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민중을 상대로 한 탄압과 박해의 폭압기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존재하며 날뛰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뒤에서 ≪민족혁명당≫사건을 재조작하여 수많은 애국자, 운동가들을 체포구금하고 고문하며 처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시사정론지 ≪자주민보≫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사진촬영장비, 원고, 자료 등을 압수하며 이창기발행인과 2명의 기자를 강제연행하는 파쇼폭거를 감행했다.

그밖에도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동국대 강정구교수를 비롯한 7명의 참가성원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쟁취를 위해 싸운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을 구속했으며 범청학련 남측본부 황선대변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파쇼폭압기구들의 탄압만행은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오늘도 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 국군기무사 등 각종 파쇼폭압기구들은 여전히 통일민주인사, 애국운동가들을 사찰명단에 올리고 미행과 감시, 도청, 고문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 속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의 소중한 인권이 가차없이 유린되고 있다.

한사람의 생명과 인권은 지구보다도 무겁다고 했다.

그런데 인간살육을 목적으로 하는 파쇼폭압기구가 그대로 존재하는 이 땅에서 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유린당했지만 오늘에는 내가 그리고 내일에는 내 후대가 당할 것이다.

국정원을 비롯한 파쇼폭압기구의 모략군들이 오늘의 통일정세, 평화국면을 뒤집어 보려고 간교하게 책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민중은 최대의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각계 애국민중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이 땅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불모지, 사상과 양심의 동토대로 만드는 반민주, 반통일폭압기구를 즉각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모략과 살육의 소굴, 반민주, 반통일 파쇼폭압기구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고 박종철 열사 서거 14주기에 즈음한 대전충남통일연대 성명서



오늘 14일은 반민주, 반통일 파쇼폭압기구인 국가정보원(당시 안기부)의 잔인한 고문에 의해 고 박종철 열사(당시 서울대 국문과 3년)가 살해된지 14주기가 되는 날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 통일의 길을 열어논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전충남통일연대는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열사서거 14주기를 맞아 민주와 통일을 일일천추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파괴하고, 반민주와 반통일을 위해 모략과 살육을 자행하고 있는 파쇼폭압기구 국정원의 만행을 폭로하며 국정원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는 바이다.

얼마전 검찰은 지난 87년에 있었던 수지김 살해사건이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조작사건이었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남편(윤태식-패스21비리 사건의 주범)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남편을 납북시키려는 북한공작원으로 둔갑함으로써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수지김, 그리고 그의 누나와 오빠는 이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에 죽거나 교통사고와 음주로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죽인 살인범 윤태식은 살인범 대신 국정원의 비호속에 사업가로 둔갑하여 처벌대신 부를 누리며 살아왔다.

수천명을 살해한 전두환 살인마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진실을 밝히고 처벌을 할 대신, 살인범은 살리고 죽은자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누명을 씌우고 같은 동족에 대한 반북대결의식을 고취하였던 것이 바로 국정원이다.

이는 국정원이 어떤 집단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요즘 신문지상에 나온 3대 비리사건에 국정원 간부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무수한 의문사 사건에 국정원이 연관되어 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의 충견으로 민주와 통일을 압살하였던 모략정치와 살육정치의 집단 국정원은 오늘에 와서도 여전히 남아 친미사대 반통일보수세력의 충견으로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려는 통일애국세력을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잡아가두고 있다.

이는 반민주, 반통일 파쇼폭압기구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땅의 민주도 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친미사대 반통일수구세력의 충견 국정원을 해체시키고 6.15공동선언 실현시키자.

살육과 모략의 소굴 반민주 반통일 파쇼폭압기구 국정원을 해체하라!

2002년 1월 14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

≪강교수 해직되면 가만있지 않을것≫

교수들 동국대측에 ≪으름장≫…민교협 등 3단체 기자회견



≪혹시라도 강정구교수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학교측으로부터 직위해제 된다면, 우리 교수들은 비이성적인 결정 맞서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사법당국의 형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동국대의 강교수 직위해제방침이 제기되자 교수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구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산업사회학회는 16(수)일 이른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서관모(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교수는 기자회견에 앞서 ≪새로운 시대에도 어김없이 구시대의 관행과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8.15 방북 중 소위 필사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강정구교수는 그동안의 학문적 성과와 활동에 준해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12월 1일 동국대 측은 강정구 교수를 개인면담하는 자리에서 ≪동국대 이사회에 직위해제안 공식 상정≫ 함을 통보했다. 강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은 1월말이나 2월초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수단체는 94년 경상대 장상환 · 정진상교수의 ≪한국사회의 이해의≫ 사건, 97년 외대 이장희 교수의 ≪나는야 통일1세대≫ 사건, 97년 광주대 박지동교수의 ≪진실인식과 논술방법≫ 대학교재 사건, 2001년 이화외국어고등학교 박정훈교사의 민혁당 조직관련 사건을 들며 ≪일련의 사건 모두가 국가보안법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당국은 일체의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전하며 강교수의 직위해제는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주장했다.

동국대측에서 주장하는 강정구교수 직위해제 안은 사립학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한다는 항목이 근거로 되어서 이전 단순 형사사건으로 인해 기소된 교수에 한해 직위해제 한 사례를 들며 법 적용의 형평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강정구교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 형사사건과 국가보안법과의 적용은 차원이 다른 문제임과 동시에 강정구 교수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더구나 국가보안법은 그 적용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는 주장이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국민의 정부 들어 학문사상의 자유 피해사례가 더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지적한 후 ≪이후 있을 7개 교수단체의 교육개혁시한부 농성 때 학문사상의 자유 수호하는 문제인식을 공유해 교수사회에 강정구 교수 문제를 확산시킬 것이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할것임을 내비쳤다.

강정구 교수가 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한국산업사회학회는 2월 16일 강정구교수 탄압사례관련해서 ≪학문자유와 학문공동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를 준비중이라고 밝히며 학문자유억압에 대해 교수사회의 대응과 함께 이후 향방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학술단체협의회 또한 ≪강교수의 필화사건이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관련 학회와 계속적인 대처를 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동국대측의 강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조치가 확정될 경우,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교수계약제 등의 사안과 결부된 ≪교권≫ 문제로 까지 확장돼, 교수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백영순 기자 2002년 1월 16일

≪반미, 통일투쟁에 기층민중이 중심에 서자≫

민중연대 자주위원회 첫 워크샵 열어



≪민중연대 반전평화민족자주위원회(자주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사회진보연대 사무실에서 첫 워크샵을 갖고 자주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비롯한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샵은 김종일(자통협) 사무처장이 기조 발제를 한 후 이에 대한 참가단체들의 토론을 거쳐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종일 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반미의식이 일반 대중 속에 확산되고 반미투쟁에로의 대중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기층 민중들이 반미투쟁, 통일투쟁의 중심역량에 서있지 못한 점≫과 ≪통일운동대오나 민중운동대오의 통일단결이 취약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회수(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가단체들은 3시간여에 걸쳐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를 통해 참가단체들은 자주위원회가 ≪반전평화≫와 ≪민족자주≫ 투쟁에서 분산적 대응을 지양하고 통일적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동의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을 주체로 하는 ≪반전평화≫와 ≪민족자주≫ 투쟁의 ≪대중화≫와 ≪강고성≫을 높여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그 외의 문제들은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올 1~2월에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WTO 뉴라운드 저지투쟁≫과 ≪한미, 한일, 한칠레 투자협정 저지투쟁≫은 우선 WTO 국민행동과 공조해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을 자주위원회의 사업으로 결정할 지에 대해서는 WTO 국민행동과 조속한 시일내에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

자주위원회는 전국연합, 사회진보연합, 자통협,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전빈련, 학생연대회의, 한청, 노동자의 힘 등이 참가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규재(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참가단체의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되는 10명의 위원과 김판태(자통협) 투쟁국장, 정수영(전국연합) 씨 등의 실무간사가 있다.

차기회의는 오는 21일에 갖고 사업계획 초안을 마련해 논의키로 했다.

자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경에 민중연대 대표자 회의의 결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워크샵에는 민중연대 사무처, 전국연합, 자통협,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등에서 14명이 참여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12

역사아카데미와 민주노동당 주최 통일정책간담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통일정책의 차이점은 뭔가요?≫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14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은 중학생들의 ≪통일≫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과 토론의 열기로 가득찼다.

역사아카데미(원장 강치원 강원대 교수)와 민주노동당이 주최하여 열린 ≪중학생, 학부모, 교사, 원탁토론광장 참가자의 민주노동당과의 통일정책 간담회≫에서 40여명의 토론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통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펼쳤다.

간담회가 시작된 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요즈음 주위에 유학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 자리를 찾아주어 고맙다≫며 ≪여러분이 바로 이 사회의 주인이다≫며 토론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다음으로 기조발제를 한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의 통일정책을 크게 보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미국의 지배간섭 반대≫라며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의 주장을 담은 통일정책에 대한 발제를 짧게 마쳤다.

이후 강치원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서부터 ≪주한미군 철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학생들은 발제내용은 공감하지만 ≪미군철수의 주장은 과격한게 아니냐?≫, ≪경제문제를 생각해보면 미국과의 마찰은 위험하다≫며 미국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규엽 자통위원장은 일단 ≪미국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며 필리핀에서 미군기지를 폐쇄시킨 예를 들어 ≪우리 민족도 힘을 합치면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최규엽 자통위원장은 ≪지금도 용산미군기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면서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민족자존심의 문제≫라며 최근의 용산미군기지내 아파트 건립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90분 가량의 간담회가 끝난 후 이러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에 대해 강치원 강원대 교수는 ≪원탁토론을 통한 학문, 교육,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구상했으며, ≪연대≫, ≪협상≫, ≪실천≫의 토론 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역사아카데미는 앞으로 1년 내내 ≪통일≫을 주제로 초, 중, 고등학생에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이와같은 ≪원탁토론광장≫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통일≫에 대한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렬 기자 (dlja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14

나남의 봉화의 기본정신

구국의 소리, 주체91(2001)년 1월 9일~10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 **였던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그 길로 찾으신 나남탄광연합기업소. 그 사랑과 믿음에 겨워 타오른 충정이 나남의 봉화로 온 북녘을 휩쓸고 있다는 건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얘기겠는데요. 그럼 나남의 봉화의 기본정신은 무얼까요. 오일씨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북민중은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친히 지펴주신 나남의 봉화를 높이 치켜들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비상한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분기해 나선 우리 이남 민중들에게 커다란 자신감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지펴주신 나남의 봉화에서 기본이 무언가하는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중대한 과제들이 나설때마다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올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가도록 하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이번에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지펴주신 나남의 봉화는 전당, 전군, 전민을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격에로 부르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봉화입니다.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 일어나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려면 누구나 나남땅에서 타오른 혁명적 봉화의 기본정신을 깊이 파악하고 그대로 살며 투쟁해야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애족의 길이 있습니다.

나남의 봉화에서 기본은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사생결단의 각오로 당이 준 과제를 무조건 관철해내는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입니다.

나남노동자계급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은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창조된 강계정신의 계승인 동시에 오늘의 시대에 새로운 높은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남의 봉화에서 기본을 이루는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은 어떤 정신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을 오직 목적의식적으로 받들고 옹위하려는 투철한 혁명적 신조입니다. 일 잘하는 충신은 있어도 말 잘하는 충신은 없다는 말도 있듯이 뼈심을 들여 많은 일을 하는 사람, 훌륭한 실적을 많이 내고 강성대국건설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참다운 충신이고 애국자입니다.

나남의 일군들과 노동자계급이 지금까지 언제나 목적의식적으로 당과 수령께 충성을 다해왔고 성실하게 앞서왔습니다. 그들은 그처럼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기에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생산할데 관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유훈교시와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맡겨준 대상설비생산과제를 드팀없이 해냈으며 두 개의 공장을 새끼치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실적의 높이이자 곧 충실성의 높이이며 당과 수령을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오직 실천으로 받들어야한다는 나남노동자계급의 투철한 혁명적 신조가 낳은 자랑스러운 결실이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바와 같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할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또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주신 과제를 최상의 영예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는 고결한 충성심입니다. 오늘 이북 민중속에서 높이 발휘되고 있는 당과 수령의 명령, 지시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은 당이 준 과제를 받아들이는 자세와 입장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당의 방침과 지시를 무겁게 대하고 그걸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을 때에만 그 어떤 아름찬 과제도 해제낄수 있습니다. 나남의 노동자계급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생산할데 관한 당이 준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애초에 이 과제의 수행가능성이나 애로같은 것을 타산했더라면 그것을 절대로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남의 일군들과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주신 과제는 혁명임무이기 이전에 자신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믿음이였고 영예였으며 삶의 요구였습니다.

이런 순결한 충성심을 안고 투쟁하였기에 그들은 당정책관철에서 불가능이라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온갖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불사르고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제작, 건설했던 겁니다.

나남의 일군들과 노동자계급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영도자님을 모실 그날을 위해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과감히 이겨내는 열화와 같은 **, 그분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우리가 잘 살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바로 나남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고결한 수령숭배의 세계였습니다.

나남의 노동자계급처럼 순결하고 열렬한 충성심을 지니고 경애하는 영도자님의 거룩한 자국에 자신의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걸음을 따라 세우며 영도자님의 구상과 의지를 빛나는 열매로 맺게 하는 사람이 진짜배기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투사입니다.

참으로 나남의 봉화에 구현된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은 오늘 우리 한국변혁운동의 전위투사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으로 새세기 통일조국을 안아오기 위한 각계 애국민중들의 투쟁을 떠미는 위력한 추진력으로 됩니다.

우리 한민전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친히 지펴주신 나남의 봉화의 기본정신을 자신의 것으로 깊이 체득하고 그걸 변혁실천에 적극 구현해나감으로써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벅찬 투쟁에서 시대의 기수가 돼야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사생결단의 각오로 당이 준 과제를 무조건 끝까지 해나가는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 이게 바로 나남의 봉화의 기본정신이네요. 장군님 지펴주신 나남의 봉화인데요, 6.15남북공동선언도 바로 그 정신으로 실천해나갈 때 통일은 큰 걸음으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설겁니다.

나남의 봉화, 그 의미

김남진 / 구국전선 제465호, 주체91(2001)년 1월 11일

오늘 이북민중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지펴주신 나남의 봉화따라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언제나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가시며 노동자계급 속에 들어 가시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그 불길이 온 나라에 타오르도록 하는 것은 **김정일**영도자님의 독창적인 영도방법이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노동자계급을 찾으시고 그들의 강의한 혁명정신과 영웅적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안아오기 위한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봉화를 지펴 주시었다.

오늘 나남의 노동자계급 속에서 타오른 혁명적 봉화의 열풍은 이북각지에 급속히 펴져가고 있으며 거대한 활력을 가지고 이북민중을 강성대국을 위한 영웅적 위훈에로 고무추동하고 있다

그러면 나남의 봉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남의 봉화는 무엇보다도 **김정일**영도자님의 사상과 영도를 높이 받들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당이 준 과제를 끝까지 해내는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정신이다.

나남의 노동자계급은 새 세기에 영도자와 운명을 같이 하는 이북의 노동자계급이 자기 영도자를 어떻게 옹위하며 영도자가 준 과제를 어떻게 결사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 주었다. 그들의 심장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것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주시는 과제는 시대의 요구이고 민중의 의사이며 그것을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신념이다. 이런 불굴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이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였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게 했다.

나남의 봉화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세계최첨단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해 나가는 자력갱생의 정신이다.

이북에서 말하는 자력갱생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다. 과학기술을 떠나 오늘의 자력갱생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나남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생산해 냄으로써 조선노동당의 과학기술중시방침의 정당성과 불패의 활력을 힘있게 과시했다.

나남의 봉화는 또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비약의 봉화이다.

나남의 일군들과 노동자계급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오늘 이북민중이 따라 배워야 할 혁명적 기풍의 귀감으로 되고 있다. 나남의 노동자계급과 일군들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모든 사업을 실리를 따져가며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열정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깐진 일본새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맡겨진 과제는 끝까지 수행했다.

이 모든 결실은 지배인, 당비서, 기사장의 3위1체가 확고히 보장되고 지휘성원들이 앞장에서 헌신적으로 돌격로를 열어 나감으로써만 가능할 수 있었다.

나남의 봉화는 아무리 최첨단기술을 요구하고 만들어 보지 못한 기계설비라 하더라도 자기 식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하며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결심을 가지고 결사관철의 원칙에서 합심하여 달라 붙으면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 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나남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노동자들이 보여준 정신이다.

참으로 오늘 이북사회에 파급되고 있는 나남의 봉화는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북소리이며 새 세기 진군의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지펴주신 승리의 봉화, 나남의 봉화가 있음으로 하여 이북민중의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은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고야 말 것이다.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광철 / 구국전선 제465호, 주체91(2001)년 1월 11일

지난해 1월 20일 부시정권이 출범한 때로부터 1년이 되어 오고 있다. 부시정권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후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대로 북미관계개선의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였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이미 파탄된 대북강경정책을 새 세기에 또다시 들고 나와 북미관계개선의 길을 가로 막고 우리의 6.15공동선언실현에 제동을 걸면서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부시정권은 집권하기 바쁘게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니, ≪강경≫이니 하면서 이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이북의 ≪재래식 군사력배치문제≫를 논의하지 않고서는≪대화를 진전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떠들었다. 여기에는 음흉한 본심이 깔려 있다.

그것은 ≪재래식 군사력축감≫을 코에 걸고 북과의 대화를 복잡한 상황으로 끌고 가며 그것을 언질로 주한미군을 영구주둔시켜 한반도에서 무력으로 이북을 병탄해 보려는 것이였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북이 ≪재래식 군사력축감≫에 응하지 않자 북과의 어떤≪합의≫도 ≪검증이 필요조건≫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전혀 타당성도 없는 핵 및 미사일과 관련한 문제까지 협상의제로 들고 나섰다. 심지어 그들은 북을≪제1주적≫으로 선포하였으며 ≪북미기본합의문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나섰다.

부시는 ≪대화재개≫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여론을 기만하고 유혹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운운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북을 걸고 들면서 감히 입에 담지 못할 극히 자극적인 악담까지 서슴지 않고 늘어 놓았다. 미국은 특히≪인권≫이요, ≪종교≫요,≪생화학무기≫요 하는 따위의 있지도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생트집을 걸다 못해 이북을 테러와 억지로 연결시키며 ≪대량살육무기개발여부에 대한 검증≫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한편 부시정권은 북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북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것은 부시정권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미국호전세력들은 힘의 대결의 주요 마당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창끝을 한반도에 돌리었다.

미국방장관이 ≪미군사력을 냉전시대의 유럽중심배치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 국무성부장관이≪미국의 군사전략중심은 아시아로 옮겨졌다≫고 실토한 것 등은 그러한 사실을 실증해 준다. 지금 미국 호전세력들은 유럽과 미본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최신예무력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로 이동 전개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한 새로운 군사전략을 작성하고 실전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이남에서 무력증강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북을 ≪테러지원국≫,≪위험요인≫으로 몰아 붙이면서 주한미군 전력을 증강하였다. 미국이 아프간전쟁으로 인한≪군사적 공백≫을 메꾼다고 하면서 본토의 1개 대대규모의 공군전투기들과 군사장비 등 기동타격무력을 이남에 새로 전진배치한 것은 그 한 사례이다.

이와 같이 부시정권은 북을 압살하기 위해 무장해제, 군사적 압력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오늘 미국은 새로운 아시아지배전략을 실현해 보려고 ≪반테러≫를 구실삼아 무모하게 북침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최근 호전적인 부시정권은 ≪반테러전쟁≫의 무대를 한반도에로 옮기려는 입장을 거리낌없이 내비쳤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지난 1년간에 북미대화를 백지화하고 강경압살책동으로 북에 무장해제를 요구하며 남북화해과정을 차단시키고 북미적대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간 것은 모두 아시아지배전략에 기인된다.

지난해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은 실패를 면치 못했다. 이북은 부시정권의 날로 악랄해지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선군혁명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나라의 국방력과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 결과 부시정권의 어떤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북의 대미자세와 원칙은 시종일관 명백하다. 미국이 선의적인 자세로 나오면 선의로 대답하고 강경으로 나올 때에는 초강경으로 맞서며 힘의 사용으로 나오면 정의의 전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미국은 이미 6.25전쟁을 통해 참패를 당했고 냉전시기의 위협봉쇄정책도 이북에는 통하지 않았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집요한 반북고립압살책동도 실패했다. 클린턴정권이 북미대화에 나선 것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 기초한 것이였다. 부시정권이 20세기에 파탄된 대북정책을 새 세기에도 답습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미국은 남북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에로 흐르는 한반도의 추세를 똑바로 보고 이미 전에 파산된 대북압살책동을 즉각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자주의 세기를 여는 당당한 발걸음, 1기 여성역사학교

자주의 세기를 여는 당당한 발걸음, 1기 여성역사학교
역사를 일구는 여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자리가 열립니다.

더 나은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은 2월 19일입니다.

기간 : 2월 23일 ~ 3월 20일(매주 토, 수요일)
회비 : 3만원
장소 : 민족 춤패 ≪출≪ 사무실
주최 : 반미여성회(준) www.banmiwoman.org 773-4067

- 내용 -

입학식 및 1강

제목 : 평양성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 -
강사 : 반미여성회(준) 손미희 집행위원장
일시 : 2월 23일(토) 오후 5시

2강

제목 : 완전한 해방은 오지 않았다.
- 해방, 분단 그리고 전쟁 -
강사 : 반미여성회(준) 이은영 조직국장
일시 : 2월 27일(수) 오후 7시

3강

제목 : 일어서는 민중, 전진하는 역사
- 민중운동사-
강사 : 반미여성회(준) 장수경 사무처장
일시 : 3월 6일(수) 오후 7시

역사기행

일시 : 3월 10일(일)
장소 : 서울

4강

제목 : 자주와 통일의 새세기를 향하여
강사 : 전국연합 이정미 여성국장
일시 : 3월 13일(수) 오후 7시

특강 1

제목 :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강사 : 추후공고
일시 : 3월 16일(토) 오후 5시

특강 2 및 졸업식

제목 : 자주 시대의 여성운동론
강사 : 인천연합 이미혜 의장
일시 : 3월 20일(수) 오후 7시

반미여성회 (www.banmiwoman.org)

새해공동사설의 내용

로동신문, 주체91(2002)년 1월 4일~10일

≪로동신문≫은 4일부터 10일까지의 사이에 걸쳐 주체91≪2002≫년 새해에 즈음하여 발표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수령님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를 해설하는 글들을 실었다.

여섯개 부분으로 된 글들은 다음과 같다.

1.올해공동사설의 기본체계

1)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와 그 요인

△지난해 성과

-≪지난해는 우리 조국의 존엄이 온 세계에 높이 떨쳐 진 긍지높은 해였다.≫

-≪지난해는 우리의 혼연일체의 대풍모가 활짝 꽃 펴난 긍지높은 단결의 해였다.≫

-≪지난해는 21세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른 장엄한 진격의 해였다.≫

-≪지난해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도전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보루를 굳건히 다진 투쟁의 해였다.≫

△지난해 이룩된 성과의 요인

≪새 세기 첫해에 이룩된 빛나는 승리는 우리 시대의 걸출한 사회주의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의 과시이며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의 결실이다.≫

2) 올해의 투쟁과업과 그 수행방도

△올해의 총적투쟁방향

-≪우리는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2002년을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떨치는 영광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준엄한 시련속에서 다져 진 우리의 힘을 천백배로 높이 발양시켜 전면적개화기를 마련하고 우리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덕을 보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드팀 없는 결심이다.≫

△올해에 4대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과업

≪올해의 혁명적대진군은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우리 사상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활짝 꽃 피워 나가야 한다.≫

△올해의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기 위한 방도

-≪올해의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자면 온 사회를 혁명적분위기로 들끓게 하기 위한 일대 정치사상공세를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대진군은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의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요인이다.≫

3)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업

-≪6.15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래일도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2.올해공동사설의 기본내용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

1) 지난해 성과

≪지난해 주체90(2001)년은 21세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가 열린 력사의 해이다.≫

≪지난해의 투쟁은 21세기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꽃 펴나는 영광의 세기로 빛날것이라는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지난해는 우리 조국의 존엄이 온 세계에 높이 떨쳐 진 긍지 높은 해였다.≫

≪**김정일**동지의 독특한 혁명활동방식과 천재적인 령도실력은 세계를 격동시켰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을 백배로 높여 주었

다.≫

≪지난해는 우리의 혼연일체의 대풍모가 활짝 꽃 펴난 긍지높은 단결의 해였다.≫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의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풍모의 순결성과 우리 정치체제의 확고부동성이 힘 있게 과시되게 된것은 사회주의 붉은기진군에서 이룩된 가장 큰 승리이다.≫

≪지난해는 21세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른 장엄한 진격의 해였다.≫

-≪전반적경제분야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 나기 시작하였으며 도처에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생산기지들이 일떠섰다.≫

-≪새 세기 진격로를 열어 나가기 위한 거창한 투쟁속에서 라남의 봉화가 타오르게 되였다.≫

≪지난해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도전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보루를 굳건히 다진 투쟁의 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답하며 적들의 기도를 걸음마다 짓부셔 버리였다.≫

-≪격변하는 정세속에서도 끄떡없이 자기의 곧바른 길로 확신성 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진보와 평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에게 고무적기치로 되고 있다.≫

2) 지난해 성과의 요인

≪새 세기 첫해에 이룩된 빛나는 승리는 우리 시대의 걸출한 사회주의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의 과시이며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의 결실이다.≫

-≪예측할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김정일**동지의 판단과 분석은 언제나 명철하였고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방략은 백발백중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에도 선군혁명로선을 확고히 틀어 쥐고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였다.≫

- 올해의 지위와 투쟁과업 -

△올해의 지위

≪새해 주체91≪2002≫년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력사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한 총 돌격의 해,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이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이다.≫

△올해의 총적투쟁방향

-≪우리는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2002년을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떨치는 영광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주체사회주의의 시조이시며 건군의 어버이이신 수령님의 생전의 뜻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하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받들고 백두의 혈통을 굳굳이 이어 나가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준엄한 시련속에서 다져 진 우리의 힘을 천백배로 높이 발양시켜 전면적개화기를 마련하고 우리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덕을 보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드팀 없는 결심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새해전투를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올해의 투쟁과업

≪올해의 혁명적대진군은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다.≫

≪수령이 탁월하고 사상이 위대하며 군대가 위력하고 제도가 우월하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4대제일주의는 주체의 숨결로 약동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이며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구호이다.≫

△4대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과업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우리 수령제일주의는 조선민족의 재생과 륭성을 가져다 준 생명수이며 우리 인민의 무비의 영웅성과 강의성, 높은 창조적위력의 근본원천이다.≫

≪얼어 놓아도 매달아 놓아도 수령만세를 부르고 절해고도에서도 수령에 대한 의리와 절개를 지키는 2000년대의 ≪ㅌ.ㄷ≫의열혈투사가 되여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탄생 90돐을 계기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전 인민적사상감정이 온 사회에 꽉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와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되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여야 한다.≫

≪우리 사상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우리 사상제일주의는 주체사상의 불패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을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싸워 나가려는 드팀 없는 의지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는 총대로 승리하여 온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불패의 군력에 의하여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표대이다.≫

-≪건군 70돐을 맞는 올해를 백두령장의 손길아래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승리자의 열병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인민의 거울이 되며 혁명대오의 기수가 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군대로 빛을 뿌리고 있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자랑 떨치고 있는 우리 군대에 대한 한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시대에 사는 인민답게 인민군대가 높이 발휘하는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고 생활화, 체질화해 나가야 한다.≫

-≪인민들은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들고 군대를 친혈육처

럼 사랑하고 인민군대는 우리 인민제일주의구호를 들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혈연적군민관계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활짝 꽃 피워 나가야 한다.≫

≪우리 제도제일주의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가려는 애국의 열정이 높뛰고 있다.≫

－≪현 시기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는것이다.≫

－≪변화된 환경과 우리 혁명실천은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완성하는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자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올해투쟁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

≪올해의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자면 온 사회를 혁명적분위기로 들끓게 하기 위한 일대 정치사상공세를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1950년대에 준엄한 전쟁의 포화도 뚫고 불 타는 강도 건느던 그 불굴의 정신, 재더미를 헤치고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그 혁명적기백이 온 나라에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

－≪창조와 혁신으로 약동하는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는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려는 라남의 대담한 공격정신과 백번천번 다시 일어 나 기어이 목표를 점령해 나가는 라남의 혁명적인 일본새가 차넘쳐야 한다.≫

≪누구나 다 낡은 틀, 고정격식화된 재래식방법에서 벗어 나 모든 문제를 혁신적안목에서 보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강한 장악력, 통제력, 집행력을 지닌 손탁이 센 일군, ≪우리≫라는 고귀한 칭호와 함께 불리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오늘의 대진군의 앞장에서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최고사령관의 가장 활력 있는 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오늘의 대진군은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오래동안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면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전통을 절대적인 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전사들의 심장속에는 위대한 령도자를 받들어 당사업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당의 기초를 축성하던 그때의 순결한 혁명정신이 맥박쳐야 한다.≫

－≪**김정일**동지께서 이미전에 내놓으신 종자론과 속도전의 방침을 비롯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일관성 있게 관철해 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의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요인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인덕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전체 인민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 세우고 우리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튼튼히 꾸려 나가야 한다.≫

－≪당사상사업의 모든 화력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도록 하는데로 집중시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에서 3위1체를 확고히 보장하여 새로운 생산적앙양이 일어 나도록 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과업

≪올해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래일도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강렬한 통일열망을 안고 투쟁하여 온 지난해의 교훈은 북남공동선언리행에 민족자주통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민족자주통일의 지름길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 나가는데 있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 들고 모든것을 민족공동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할것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외세에 민족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거세하는 사람은 민족반역자이다.≫

≪우리 민족은 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호전세력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것이다.≫

≪제국주의호전계층들은 우리 민족의 드팀 없는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대조선고립압살기도를 버려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있고 옳바른 민족통일강령이 있는 한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주체사상학습교안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홍엽(편집국 보도 35호)

≪백석탄에서의 군정학습은 홍기하전투와 대마록구전투를 비롯하여 대부대선회작전을 결속하던 시기와 소부대활동시기 우리가 진행한 일련의 군사정치활동에서 큰 은을 냈습니다. 나는 그후에도 알아야 앎을 내다볼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일군들이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언제나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울데 대하여 늘 강조하였습니다.≫(김일성주석, ≪세기와 더불어≫ 제 7권)

≪수령님의 노작은 혁명과 건설에 관한 진리를 집대성한 백과사전이며 주체사상의 총서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노작이야말로 우리가 연구, 학습해야 할 가장 귀중한 고전입니다.≫(김정일장군,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현재 주체사상학습이 맹렬히 진행 중입니다. 동지들의 동기집중학습을 방조하기 위하여 ≪주체사상학습교안≫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편의상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교재는 주로 통신에 공개된 자료들로서 괄호안은 아직 미공개자료들입니다.

1. 초급

역시 인식전환을 위한 혁명소설, 수필집, 입문서들이 좋습니다.

1) 혁명소설
사이공의 흰옷, 어머니, 붉은 바위,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쇠찌르레기, 뻐꾹새가 노래하는 곳, 벗, 60년후, 절정, (나의 교단), 대학시절, 청춘송가, 아침해, 애국시대, (완전한 만남)

2) 수필집
(내가 만난 북녘사람들), (사람이 살고 있었네), (더디 가도 사람 생각하지요 1, 2), (이인모), 겨레의 꿈 과학에 실어, 우리 사상의 혁명, 사회주의나라에서 사회주의를 생각한다

3) 입문서
청년대중을 위한 세계의 역사, 민족해방철학, 재미있는 철학강의, 알기쉬운 정치경제학, (통속정치경제학), 우리시대의 인생관,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과 세계, 한국의 사상문화

4) 기타
주체의 학습론, 전환기 학생운동의 방향성

2. 중급

기본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회고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전기, 그리고 ≪6대 개론서≫입니다.

1)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 1권 – 제 8권

2) 전기, 실화, 흠모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정통과 계승, 위인실화, 은혜로운 사랑의 태양, **김정일**장군 영도철학,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정치, 21세기 **김정일**세기, **김정일**민족관, 현세의 한울림, 흠모

3) 6대 개론서
민족과 철학, 현대조선역사, 주체의 정치학원론, 주체정치경제학(≪98), 문예창작방법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4) ≪불멸의 혁명역사≫, ≪불멸의 향도≫ 총서
≪불멸의 혁명역사≫ – 닻은 올랐다, 혁명의 여명, 은하수, 대지는 푸르다, 봄우뢰, 1932년, 혈로, 압록강, 위대한 사랑, 잊지 못할 겨울, 천지, 삼천리강산, 50년 여름, 조선의 힘, 승리, 영생
≪불멸의 향도≫ – 푸른 하늘, 평양의 봉화, 평양은 선언한다, 역사의 대하

5) 혁명시집
백두산, 조국과 청춘, 햇살들의 노래

6) 주석님과 장군님의 주요노작
주석님 – ≪조선혁명의 진로≫, ≪조국광복회의 10대 강령≫,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할데 대하여≫,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재미교포 최덕신과 한 담화≫, ≪서부독일 여류작가 루이저 린저와 한 담화≫, ≪재서독교포 윤이상과 한 담화≫, ≪재미교포 손원태씨와 한 담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여운형의 자녀들과 한 담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장군님 – ≪대학생들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 처리할 데 대하여≫, ≪영화예술부문일군들속에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혁명가극 ≪피바다≫는 우리식의 가극, 인민경제에 대한 당적 지도를 잘 할데 대하여≫,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 할데 대하여≫,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영화예술론≫,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의 혁

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현 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7) 기타 서적

주체사상, 통혁당, 한국전위조직운동사, 북한의 통일정책변천사, 북한의 문예이론,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한국사회성격논의의 재조명, 브라질노동자당과 룰라

3. 고급

기본은 주석님과 장군님의 노작과 주체사상총서, 당사입니다.

1) 주석님과 장군님의 노작

중급과정에 있는 철학관련 노작, 사회주의건설관련 노작을 심화학습하면서 특히 당사업관련 노작을 깊이 연구하여야 합니다.

주석님 –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북조선노동당 창립에 대한 보고≫, ≪북조선노동당 2차 대회≫, ≪조선노동당 3차 대회≫, ≪조선노동당 4차 대회≫,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조선노동당 5차 대회≫, ≪조선노동당 6차 대회≫, ≪조선노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할 바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련은 주체사상의 귀중한 결실이다≫

장군님 –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자≫,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자≫, ≪우리식의 혁명적 영화창조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당일군은 높은 정치실무적 자질을 갖춘 실력가가 되어야 한다≫, ≪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꾸바신문 ≪그란마≫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조선노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혁명선대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2) 주체사상총서

총서를 순서대로 보아도 좋고 1, 2, 4, 10권을 먼저 보고 3, 5, 6, 7, 8, 9권을 보아도 좋습니다.

3) 당사

80년대 이후의 조선노동당의 역사는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을 보기 바랍니다.

조선노동당약사,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4) 국제공산주의운동사

역시 쏘련공산당사가 기본입니다.

쏘련공산당사, 중국공산당사, 베트남공산당사

5)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원전

스탈린선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맑스엥겔스선집,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제국주의론, (국가와 혁명), 스탈린선집1, 2

6) 기타

각종 사전을 철학, 당사, 정치경제학 학습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학사전, 정치사전(≪85), 경제사전(≪85)

철학의 정립 1, 2, 나와 주체사상과의 대화, 주체철학, **김일성**주의도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은 혁명과 진리의 백과전서이며 주체사상의 총서입니다. 그러나 6대 개론서와 주체사상총서, 당사를 학습하지 못하고서는 주석님과 장군님의 노작을 풍부하고 심오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관계를 철학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주체사상의 독창성과 진리성을 옳게 터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에 대한 체계가 서고 주체의 혁명사에 대하여 알게된 후에는 맑스레닌주의와 국제공산주의당사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는 철학과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분야와 통일전선론, 당건설론, 비합조직론, 전략전술론 등으로 주제를 정해 심화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교재들을 정독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반복학습하며 어느 책의 어디에 뭐가 있다고 뜬금으로 외울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 주제만 제기되면 바로 주석님과 장군님의 명제로부터 관련 개념, 관련 역사가 줄줄 풀려나올 때 비로소 이론적으로 준비된 주체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론적 바탕이 있어야 실천투쟁을 옳게 전개할 수 있으며 이론과 실천이 결합될 때에만 좋은 종자를 발견하며 변혁운동대오에 이론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책일수록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배포한 주체사상시디에는 이런 좋은 책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보기 쉽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주체사상시디를 구할 수 없다면 ≪인터넷전국연합≫, ≪인터넷민주노동당≫, 그리고 ≪인터넷구국전선(ndfsk.dyn.to)≫을 찾기 바랍니다.

누구나 열렬한 독학가가 되고 피타는 노력을 한다면 이론적으로 탁월한 주체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지들의 학습에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홍엽
주체 91(2002)년 1월 12일
서울

비합인터넷선전전 총화

통일여명 편집국 공보(편집국 보도 34호)

≪동강에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할 때 우리는 그 기관지의 발행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이라는 큰 그릇에 각계각층의 민중을 다 담아가지고 항일대전을 거족적인 경지에로 끌어올리자면 ≪입대포≫나 ≪북대포≫도 잘 써먹어야 하지만 특히 ≪붓대포≫가 은을 내게 해야 하였다.≫(김일성주석, 세기와 더불어 제 5권)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은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다.≫(김정일장군,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주체 91(2002년) 1월 10일 현재, 청년주체주의자들의 지난 기간의 비합인터넷선전전을 총화합니다.

1. 페이지수와 용량

(≪인터넷 구국의 소리≫제외, 분할본 제외, 학습교재는 편집포함)

사상서적 – 총 158권 / 페이지수 : 39,961페이지 / 용량 : 96,383킬로바이트
통일여명 – 총 13권 / 페이지수 : 8,232페이지 / 용량 : 22,418킬로바이트
통일여명자료집 – 총 44권 / 페이지 : 27,297페이지 / 용량 : 48,244킬로바이트
6.15주간 – 총 27권 / 페이지 : 1,463페이지 / 용량 : 104,119킬로바이트
피디에프자료집 – 총 30권 / 페이지 : 2,095페이지 / 용량 : 129,540킬로바이트

* 전체 자료집 – 총 272권 / 페이지 : 79,048페이지 / 용량 : 400,704킬로바이트

2. 총조회수, 총내려받기수

(민주노총, 전농, 한청협, 민족통신, 진보네트워크 등은 제외,
4월 15일 이전에는 자민투위로 그 이후에는 통일여명으로 활동)

1) ≪전국연합≫(2002년 1월 10일 현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 조회수 합계 : 65,852
통일여명(월간, 단행본, 입력자료) – 조회수 합계 : 68,204
6.15주간(주간, 단행본) – 조회수 합계 : 18,466
인터넷구국의소리 – 조회수 합계 : 48,425
자주민주통일위원회대변인(16회) – 조회수 합계 : 2,561

* 전국연합 게시판 자료 전체 조회수 : 203,508

2) ≪민주노동당≫(조회수는 2001년 10월 13일 이후만 확인가능)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 내려받기수 합계 : 1,709
통일여명 – 조회수 합계 5,440 / 내려받기 통합 4,441(4월–10월 13일 1,417, 그 이후 3,024)
6.15주간 – 조회수 합계 2,772 / 내려받기 통합 3,086(4월–10월 13일 806, 그 이후 2,280)
인터넷구국의소리 – 조회수 합계 1,747 / 내려받기 통합 1,967(4월–10월 13일 1,050, 그 이후 917)

* 민주노동당 자료실 – 총 조회수(2001년 10월 13일 이후) 9,959 / 총 내려받기수(전체) 11,203

3. 평균조회수, 평균내려받기수

(* 민주노동당 자료실의 총 조회수는 2001년 10월 13일 이후,
총 내려받기수(전체) 11,203)

1) 학습자료
전국연합 – 총 조회수(127권) : 61,357 / 조회수 평균 : 280
민주노동당 – 총 조회수(40권) : 1,348 / 조회수 평균 : 33
– 총 내려받기수(101권) : 2,855 / 내려받기수 평균 : 28

2) 통일여명
전국연합 – 총 조회수(13권) : 8567 / 조회수평균 : 659
민주노동당 – 총 조회수(3권) : 247 / 조회수평균 : 82
– 총 내려받기 수(12권) : 378 / 내려받기평균 : 31

3) 백서자료집
전국연합 – 총조회수(43권) : 15,691 / 조회수평균 : 364
민주노동당 – 총조회수(7권) : 803 / 조회수평균 : 33
– 총 내려받기수(36권) : 901 / 내려받기수평균 : 25

4) 6.15주간
전국연합 – 총 조회수(28권) : 8,470 / 조회수평균 : 302
민주노동당 – 총 조회수 (12권) : 1,164 / 조회수평균 : 97
– 총 내려받기수(26권) : 1,698 / 내려받기평균 : 65

5) PDF자료집
전국연합 – 총 조회수(30권) : 4,962 / 조회수 평균 : 165
민주노동당 – 총 조회수(20권) : 1,461 / 조회수 평균 : 73
– 총 내려받기수(27권) : 1,388 / 내려받기 평균 : 51

6) 구국의 소리
전국연합 – 총 조회수(72권) : 41,135 / 평균조회수 : 570
민주노동당 – 총 조회수(12권) : 1,292 / 평균조회수 : 107
– 총 내려받기수(55권) : 1,606 / 평균 내려받기수 : 29

7) 자주민주통일위원회대변인(전국연합)

날짜	제목	조회수
01-12-19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113
01-11-26	≪비상경계조치≫를 해제하고 통일부장관을 파면하라	196
01-10-18	미 부시정권은 대북적대시정책을 중단하고 북미공동코뮈니케를..	81
	전쟁은 또다른 테러	90
	고이즈미내각은 자폭하라	47
01-09-10	주체의 청년운동은 위대한 영도따라 승리의 한길로 나아간다	256
	주체의 강성대국을 알리는 장쾌한 신호탄	194
01-09-04	대북적대시정책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197
	국가보안법폐지는 장군님의 서울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기본전제	142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	334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공동선언은 하나	109
	일본군국주의라는 폭주기관차의 종착역은 파멸	62
01-08-25	통일혁명당원들의 숭고한 애국심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357
	자주민주통일의 적, 이회창을 처단하자	174
	조선일보는 이회창패당의 기관지	104

	방북대표구속은 친미예속성의 발로	105

*조회수 합계 : 2,561 / 조회수 평균 : 160

8)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전국연합)

날짜	제목	조회수
02-01-02	월간 ≪통일여명≫의 체계를 혁신합니다	558
01-12-31	12월주체사상시디배포투쟁을 총화함	86
	통일의 여명이 밝아온다	304
	주체 90년 한국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10대 선전투쟁 총화	214
02-01-01	주체의 명곡파일 30곡을 추가 공개합니다	137
01-12-25	역사적인 12월 24일을 뜻깊게 기념하며	398
01-12-18	월간 ≪통일여명≫ 창간 한돌을 맞이하며	281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전략전술	743
	≪통일전선 관련 주요논문집≫을 발간하며	386
	주체의 명곡파일을 게재하며	240
01-12-04	≪한호석소장의 주요논문집≫을 발간하며	892
	한호석소장의 10월 19일자 논문을 추천하며	461
01-11-26	우리는 인터넷전국연합을 믿습니다	461
01-11-20	인터넷전국연합이 취한 아이피주소공개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646
	인터넷전국연합을 이용하는 동지들은 즉각 보위조치를 취하여야..	561
01-11-01	비판노트- 이산, 김철수 동지의 논문에 대하여	1303
	≪인터넷 구국의 소리≫ 발표 한돌을 축하하며	162
	≪브라질노동자당의 건설경험에 대하여≫	244
01-10-18	한호석소장의 최근 논문 ≪조미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	396
01-10-05	더욱 헌신분투하겠습니다!	110
01-09-30	≪유시민의 100분토론 – 당면정세와 진보정당건설≫-퍼옴	489
01-09-25	전국연합과 민주노동당의 게시판에만 게재함!	600
	≪두 개 전선≫과 ≪하나의 전선≫ 1 – 공개질의	1627
	≪두 개 전선≫과 ≪하나의 전선≫ 2	1274
	한총련운동가들을 위한 진보정당건설 관련 일문일답 1	478
	진보정당 관련 주요논문집을 발간하며	539
	진보정당 건설에 대하여	770
	진보정당건설로 한총련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자	402
01-09-04	청년학생운동가들에게 드리는 글(편집국 보도 4호)	613
01-08-25	≪8.15주체사상시디배포투쟁≫을 총화함	604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활동을 시작함	382
	월간 ≪통일여명≫의 체계를 혁신함	397

*조회수 합계 : 16758 / 조회수 평균 : 524

9) 6.15주간 편집부 보도(전국연합)

날짜	제목	조회수
01-12-18	월간 ≪통일여명≫ 창간 한돌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152
01-11-26	≪21세기 태양≫ 총서를 발간하며	624
01-09-10	새로운 인터넷 선전투쟁을 시작함	231

*조회수 합계 : 1007 / 조회수 평균 : 335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년 1월 12일
서울

≪주체사상총서문답≫을 발간하며

통일여명 편집국 공보 (편집국 보도 36호)

≪학생들의 사고를 적극 계발시키기 위하여서는 토론과 논쟁을 널리 하며 특히 문답식 방법을 옳게 적용하여야 한다. 문답식 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으로서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증명되었다.≫(**김일성**주석,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문답식학습방법은 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하는데서 아주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원래 문답식학습방법은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되여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낸 전통적인 학습방법입니다.≫(**김정일**장군,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김일성**주의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동지여러분의 주체사상학습을 방조하기 위하여 문단식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이 자료집은 지난해 초에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홍엽동지가 발표한 ≪주체사상총서문답≫을 새롭게 편집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그동안 동지여러분의 주체사상학습을 방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재를 발간하였습니다. 우리가 입력 또는 편집하여 공개한 사상서적들은 150권이 넘는 매우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집을 비롯하여 주체사상총서 전권, **김일성**주의도해, 철학사전, 정치사전, 경제사전, 그리고 민족과 철학을 비롯한 주요개론서 등은 주체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체사상총서는 주체사상의 기본체계인 주체의 사상과 이론, 방법을 전일적으로 담고 있는 대표적인 교재입니다. ≪주체사상총서문답≫은 **김일성**주의도해와 함께 주체사상총서 학습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집중적인 동기주체사상학습이 맹렬하게 진행중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새롭게 편집해 발표하는 ≪주체사상총서문답≫이 동지들의 주체사상총서학습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인 문답식학습방법이 이번 계기를 통해 더욱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0년 1월 15일
서울

≪2002년 총노선 관련 당문헌집≫을 발간하며

통일여명 편집국 공보(편집국 보도 38호)

주체 91년(200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민족민주대오는 올해를 기필코 자주민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으로 만들기 위한 필승의 각오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무릇 운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표, 수단, 방법의 전일적 체계인 전략전술을 가져야 합니다. 과학적인 투쟁목표와 방도가 없이는 강대한 적과 맞서 전개되는 복잡하고 간고한 변혁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민족민주대오에는 언제나 명확한 투쟁방략을 제시하여 주는 변혁의 사령부가 있습니다. 전위당은 지난 기간 단 한번의 오류도 없이 우리 민족민주대오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민주대오는 전위당의 신년메시지를 접하는 것으로 한해의 투쟁방향을 수립하고 투쟁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여 왔던 것입니다.

올해에도 어김 없이 조선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신년공동사설이 발표되었습니다. 신년공동사설에서는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올해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한민전은 올해 예년과 달리 신년서한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우리 민족민주대오의 진로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새해정국과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민주애국세력의 총결집으로 자주적 통일의 새아침을 열자≫, ≪2002년 정국진단≫, ≪한민전 대변인 1월 8일자 담화≫ 등은 ≪노동신문≫등의 신년공동사설과 함께 우리 민족민주대오가 올해의 총노선을 수립하는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주요문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90돌이 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신 60돌이 되는 대경사의 해입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올해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 의지와 경륜의 구현이며 민족자주통일의 강령인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조국통일을 위한 비약의 한해로 만들기 위한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이에 우리 통일여명 편집국은 첫 사업으로서 전위당이 올해 초에 구국의소리방송과 인터넷구국전선에 발표한 올해 총노선과 관련이 있는 문헌들을 모두 모아 동지들이 보기 좋게 편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지들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강조표시를 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민족민주대오가 전위당의 방침을 옳게 접수하며 올해의 투쟁방향을 제대로 수립할 것을 확신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년 1월 15일
서울

이 길로 가자

최학수

보는 사람 듣는 사람 가슴 가슴에
열정으로 타오르네 희망으로 빛뿌리네
광주로 부산으로 노도처럼 퍼져가는
이북의 새해 공동사설이여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을수록
생 넘치는 민심의 광장에
너는 세웠구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통일이정표
6.15남북공동선언 금빛 푯말을

설명이 없어도 우리는 안다
암흑의 분단세월 너무도 길어
겨레의 고통이 너무도 깊어
못잊을 2000년 6월
평양의 하늘가에 봉화로 타오른 자주의 통일선언

이 선언을 따르는 길에 참다운 애국도 있어
이 선언을 지키는 길에 뜨거운 애족도 있어
누구에게나 소중한 통일의 선언

이 선언 배신하는 자 역적으로
민중의 심판을 받고
이 선언 가로막는 자 매국노로
역사밖에 밀려나리니
아! 6.15선언
너는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

빛나는 이 선언앞에서 이북동포를 적으로 보는 주적론은 무어냐
통일의 발걸음 가로막아 나선 보안법은 또 무어냐
분단의 오물 온갖 잡동사니 짓뭉개버리며
이북의 공동사설 그 목소리에 발걸음 맞추자
통일의 이정표따라

이 길로 가자
김정일장군님 가르키시는 참다운 자주통일의 길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의 길로 힘차게 앞으로

주체 91, 1월 12일

지난 1일 새벽 부산시 동구일대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는 전단들이 뿌려져 주민들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총련, 민주노동당, 전국연합의 지도부성원들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강릉에서 합동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합동수련회에서는 2002년 정세전망과 투쟁방향에 대하여서와 민중연대, 통일연대강화방안, 2002년 선거대응과 강력한 진보정당건설 등의 의제들이 논의됐습니다.

참가단체들은 일치하게 이번 6개 단체지도부합동수련회가 민주운동의 단합과 전진의 역사적 전기로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합동수련회에서는 ≪진보진영의 총단결로 2002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자≫라는 제목의 공동결의문이 발표됐습니다.

결의문은 현 정세에 언급해 미일호전광들의 전쟁책동으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들고 남북관계 또한 얼어붙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은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문은 민주주의와 개혁을 후퇴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보수반동의 탁류도 거세어지고 있으며 정치권은 민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을 다투어 미국에 대한 충성경쟁을 하며 권력다툼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의문은 그러나 투쟁하는 민중이 있기에 2002년은 희망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반미반정부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문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6.15공동선언을 관철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미일호전광들의 전쟁책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족자주, 대단결의 기치를 들고 반전반미, 조국통일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문은 민족민중운동진영의 상설적 공동투쟁체인 민중연대의 본 조직을 힘있게 결성하고 통일연대를 강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문은 무능력하며 권력욕에만 사로잡힌 기성보수정치세력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할수 없다면서 올해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총단결로 보수정치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으로 우뚝서는 강력한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간부의 집에서 고성능 도청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이 발견돼 노동계의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보도된 것처럼 지난해 12월 23일 창원시 **동에 있는 이승필 전 금속노조위원장의 집에서 이삿짐을 싸던 도중 냉장고안에서 소형도청장치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도청기는 보안전문인사의 감정결과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수입되는 케이케이400케이형으로 반경 2킬로미터까지의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도청거리안의 정부수사기관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노동운동가나 노동운동단체에 대한 불법**활동과 감청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심각한 인권침해행위가 분명하다면서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불법도청행위가 근절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운동가의 집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된 것은 공안기관이 노동운동에 대한 사찰을 항시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당국이 노동운동을 탄압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죠. 이는 또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의 집에서 도청기가 발견된 것은 공안기관이 주인도 모르게 드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사생활침해, 인권침해행위인 것입니다.

공안당국의 이같은 불법적인 도, 감청으로 인해서 가족의 모든 사생활이 다 드러나서 가족들은 형언할수 없는 불쾌감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도청기까지 설치하는 공안기관이 전화도청을 안했을리 만무한 것이고 이같은 도, 감청행위가 이승필씨의 집에 대해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운동가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당국이 인권신장이요 뭐요 하면서 이른바 인권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노동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의 ***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동계의 강력한 항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시민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옛 국민은행 노조간부들은 10일 국민은행통합전산체계선정결과를 수용할수 없다며 서울 종암동 전산1본부 중앙통제실을 점거하고 시한부농성을 벌였습니다.

지난 89년에 의문사한 당시 중앙대 안성분교 총학생회장인 이내창씨가 타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내창씨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발표를 통해 이내창씨가 당시 안기부 직원 조모씨와 동행했다는 목격자 최모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이 조사한 것처럼 실족으로 하여 익사했을 가능성이 없으며 시신에 나타난 외상도 실족에 의한 외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맹호부대가 지난 10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혹한기 야외전술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혹한기 악조건과 동계작전수행능력을 **하기 위해 일부 훈련과 지대지전술훈련으로 구분해 실전과 같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미국이 올해를 전쟁의 해로 정하고 한반도 등 세계도처에서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과 때를 맞추어 군당국이 갖가지 명목의 훈련을 벌이면서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는 것은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이 아닐수 없습니다.

미국과 군부집단의 무분별한 새전쟁도발책동으로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에이즈질환감염자수가 계속 급증세를 보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을 연대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수록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총서인 **김일성**전집 제40권을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출판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보내신 생일여든돌상이 11일 강원도 구강예방원 의사인 노력영웅 전영수씨에게 전달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새해에 즈음해 마로코국왕이 축전을 드렸습니다.

이집트신문 ≪알 아흐람≫ 7일자가 2001년 러시아를 뒤흔든 10대 주요사변들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이북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 기차로 여행하심으로써 러

시아는 세계 역사에서 노정이 가장 긴 방문을 하시는 외국수반을 맞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을 지지해 여러 나라 인사들이 담화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체 91, 1월 13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1월 6일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942군부대를 시찰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2002년 새해에 즈음해 이북 주재 러시아연방 특명전권대사의 초청에 따라 1월 6일 대사관을 방문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전남대학교의 인문대학을 비롯한 9개 대학 학생회장들과 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가 이 대학교 2001년 부총학생회장인 김도형남총련의장 권한대행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강제연행한 수사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해 지난 6일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구시대의 악법인 보안법으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애국하는 청년학생을 수배, 구속하는 부당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수 없다면서 전남대학교 6만학우는 반통일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김도형학우를 즉각 석방할 것과 보안법철폐, 보안수사대해체,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다수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5일근무제도입을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동운동가의 집에서 도청기가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23일 경남 창원시 이승필 전 금속노조위원장의 집에서 소형도청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도청의 증거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한편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고발 등 대응책에 나섰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공안기관의 감시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국립대입학금과 수업료를 지난해보다 5%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지난해보다 6%에서 9%오른 선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민전 대변인은 이북의 새해 공동사설을 지지해 8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하 생략)

각계에서 올해의 조국통일의 발전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북의 새해 공동사설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를 높이 치켜들고 통일운동에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통일연대의 한 인사는 이북에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에서 밝힌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정당하고 **있는 주장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당국간 대화와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이 활발히 진행됐는데 ****** 미제의 간섭과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남북관계는 또다시 소강상태에 빠졌다. 지난해의 교훈은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자면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간섭과 외세와 야합해서 6.15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이회창 한나라당 패거리들과 군부내 보수강경세력들의 이른바 ≪주적론≫을 철회시키고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반통일책동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또다시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민족자주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외세를 몰아내고 반통일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모두다 나서야 한다.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자주통일을 보장하자면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해야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호전광들은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을 구실로 이 땅에서 긴장상태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면서 6.15공동선언이행을 파탄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다. 특히 부시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책동하면서 한반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이 땅에 전쟁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면 미국의 새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전쟁의 온상인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올해에 반미반전투쟁의 도수를 더한층 높여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일치단결해서 양키들에게 철수를 안겨야 한다.≫

한편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하자면 당국자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줏대없이 행동할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정신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북의 탄도미사일위협에 대처해 주한미군과 국군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했다고 8일 국방부의 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특수미사일부대창설은 한국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을수 있도록 추동할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4일 미본토와 동맹국들을 미사일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시의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 탄도미사일방어기구를 미사일방어기구로 승격시킬 것이라고 ***습니다.

럼스펠드는 서울에 미사일방어계획을 요구하기 위해 이달중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하는 등 본격적으로 달라붙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에 대해 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특수미사일부대까지 창설하고 이 특수미사일부대에 일부 직책을 한국공군에 맡기려고 책동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기어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서울지역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폭격훈련피해보상을 요구한 매향리주민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지부는 9일 매향리주민피해대책위원회 전만규씨 등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국민 1인당 975만원에서 110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매향리주민들은 19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앞바다를 미공군사격장으로 제공한뒤 전투기집중사격과 폭탄투하훈련으로 피해를 당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4월 1심에서 승소한바 있습니다.

매향리주민들이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그들의 의로운 투쟁이 이뤄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